

산업생산도 기업심리도 경제지표 살아났다

지난달 산업생산 1.2% 상승반전
4월 BSI 83...전달보다 4포인트↑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대내외 악재에 공포 얼어 붙었던 한국경제가 최근 각종 지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보호무역주의, 북한 리스크, 가계부채 등 여전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 경기회복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편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이 생산지수를 끌어 올리면서 전달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4%)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한 뒤 올해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3월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3월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 효과로 전달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14.9%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 효과가 컸는데, 앞으로 두 투자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3.7% 좋아졌다.

소비를 의미하는 3월 소매판매는 2월과 같은 보합을 유지했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 등이 줄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전달과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2월 소매판매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2월 소매 판매(3.2%) 수치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앞두고 보파리상인들이 화장품과 신발 등 비내구재 사재기에 나선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반적인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감안하면 소비와 관련한 지표가 상승세를 탔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 체감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3으로 집계돼 3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작년 12월 72에서 올 1월 75로 오른 이래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수치로는 2012년 5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출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전망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본격적 경기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양창균 기자 yangck@



최태원 회장

‘도시바 인수전’ 마지막 승부수 띄우는 귀타이밍, 트럼프와 직접 담판 SK, 혼하이 상대로 힘겨운 싸움



귀타이밍 회장

대규모 美투자·일자리 창출로
美·日 기술유출 우려 불식 총력
일본서 인수전 살핀 최태원 회장
“아직 말하기엔...” 신중한 모습

대만 혼하이정밀공업의 귀타이밍 회장이 도시바메모리 인수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샤가 신문에 따르면 귀 회장은 도시바의 반

도체 메모리 사업부인 도시바메모리 인수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직접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귀 회장은 이미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있는 상태여서 이날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혼하이는 1차 입찰에서 참가 기업 중 가장 많은 3조 엔(약 30조5592억 원)을 써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귀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 만남이 성사되면 대규모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29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를 침체에 직면한 만큼 귀 회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귀 회장은 이미 불필 작업도 마친 상태다. 지난 2월 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의 만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회동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와 귀 회장 두 사람 모두

와 친분이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주선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SK하이닉스의 도시바메모리 인수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24일부터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혼하이와 비교하면 자금력이 서나 인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평가다. SK는 1차 입찰에서 2조 엔을 써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항공연휴 해외로~

최장 12일간의 5월 황금연휴를 앞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까지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19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동근 기자 foto@

投心도 살아났다...주식계좌수 연일 최고

올들어 18만여개 늘어 2337만개

개로 집계돼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의 귀환일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에 바짝 다가서면서 주식 계좌 수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6일 기준 주식거래량동계좌는 2337만976

중시 혼용과 공모주 청약 열기가 맞물리면서 올 들어 26일까지 늘어난 주식 계좌 수는 18만8574개에 달한다. 14일 2332만5366개로 최고치를 달성한 계좌 수는 이후 26일까지 2주에 걸쳐 매일 최다 기록을 썼다. 유해은 기자 euna@

이슈 & 인물 ▶ 15
홍춘욱 키움증권 팀장
토요일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외제車 보험금 과소지급 '보험사 빅4' 전격 조사

금감원, 삼성·동부 이어 내달 현대·KB손해보까지 검사

금융당국이 외제차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검사를 시작했다. 보험금 산정 시 차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3편
삼성화재, 동부화재가 이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현대해상, KB손해보보험이 검사를 받는다. 금

용당국이 대형 손보사 '빅4'를 대상으로 연이어 검사에 나서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대형사들이 차량가액이 아닌 저렴한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고급 외제차량인 부가티의 차량가액이 4억 원, 사고 난 시점의 시가가 3억6000만 원이라면, 당국은 약관상 차량가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차차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껏 사고 시점에서 시가를 적용해 3억6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왔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400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차량가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받아놓고, 정작 보험금은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가액과 시가의 괴리는 특히 외제차에서 커진다. 보험개발원이 차량기준

가액을 제공하지 않는 외제차량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부가티 등 외제차량은 시장 형성이 덜 돼 있고 수요자도 일부인 탓에 보험사 스스로 차량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해석에 따라 보험금 산정 기준이 차량가액이 아닌 시가로 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21조)에 따르면 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가액이 시가를 ‘현저하게 초과’하면 시가를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업계와 당국은 이 ‘현저한 차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박규준·서지희 기자 abc84@

더불어민주당 이 신문광고는「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통신비 시원하게 깎아드림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시원하게 깎아주는 나라
데이터 이용 환경을 싸고 편리하게 다듬어주는 나라
문재인이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만들어갑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1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 통신기본료 폐지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 공공 와이파이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데이터 뉴스 Data News

포브스 선정 한국의 10대 부자 (단위: 억달러)

순위	이름(나이)	직위	재산
1위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	168
2위	서경배(54)	아모레퍼시픽 회장	67
3위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62
4위	권혁빈(43)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	61
5위	정몽구(79)	현대자동차 회장	45
6위	최태원(56)	SK 회장	36
7위	김정주(49)	넥슨 대표	30
8위	박현주(58)	미래에셋 회장	27
9위	정의선(46)	현대자동차 부회장	24
10위	이중근(76)	부영 회장	23

포브스, 한국 50대 부자... 이견희 회장 9년 연속 1위

삼성그룹 이견희 회장이 9년 연속 한국 최고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에서 이견희 회장은 1위에 올랐다. 이 회장의 재산은 42억 달러가 늘어난 168억 달러(약 18조9806억 원)였다. 삼성전자가 주가는 갤럭시 노트7의 리콜 사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뛰었고, 특히 이견희 회장의 재산은 달러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위는 67억 달러를 보유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이었다. 이견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산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62억 달러로 평가되며 3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중국의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보복과 대기업 수장들의 비리 연루에도 한국의 부자 순위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전체 시가총액의 2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활약한 덕에 지난해 코스피는 6% 오르면서 부자 순위도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2017년 명목등록금 변화 여부 (단위: 개교)



* 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년 계열별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대학생 등록금 700만원 육박... 학생 70% 이상 B '물학점'

올해 대학생 한 명이 1년간 내는 평균 등록금은 66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각 대학의 등록금과 학점관리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개했다. 올해 분석대상 4년제 일반대학 187곳 중 98.4%인 184곳이 등록금을 동결(160곳) 또는 인하(24곳)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대구예술대, 송원대, 예원예술대 등 3곳이다.

올해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연세대(901만6700원)였다. 이어 한국산업기술대(900만3700원), 이화여대(852만8400원), 을지대(849만9100원), 추계예술대(847만800원) 순이다.

학점의 경우 2016년 기준 과목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은 69.6%로 전년(69.4%)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졸업 평점 평균을 백분율 점수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인 졸업생 비율은 90.4%로 전년(90.8%)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돌아온 이재현... '그레이트 CJ' 키 잡는다

(CJ그룹 회장)

내달 17일 'CJ블로썬파크' 행사 참석... '4년만의 복귀' 예고
올해 5조 투자 집행... 2020년까지 '매출 100조 플랜' 지휘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났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내달 17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경영에 복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2013년 구속되며 경영에서 물러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28일 CJ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돌아왔다. 현재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정상 수준의 60~70%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3월 유전병인 사르코마리투스병(CMT)의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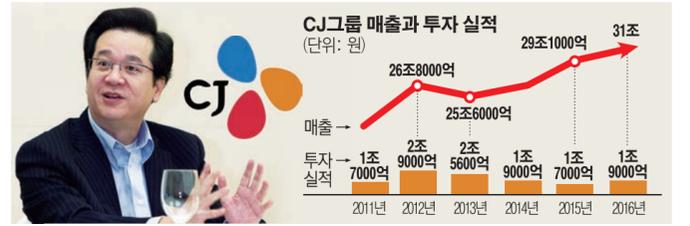
이 회장의 경영 복귀는 건강 회복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회장은 2013년 조세포탈·황병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건강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조만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데다 이

회장이 건강 회복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하면서 복귀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복귀 부담을 한층 줄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내달 17일 경기도 수원 CJ블로썬파크에서 열리는 '온리원 콘퍼런스' 행사를 통해 복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행사는 매년 뛰어난 실적을 낸 임직원들에게 시상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이 회장의 부재로 가라앉았던 그룹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던 주요 임직원들이 모이는 이번 콘퍼런스가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8일께에는 각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보고도 받는다.

이 회장의 복귀가 확실시되면서 '그레이트 CJ 2020'을 향한 CJ그룹의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레이트 2020'은 2020년까지 매출 100조 원, 해외매출 비중 70%를 달성하겠다는 CJ그룹 비전이다. CJ그룹은 지난해 약 31조 원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어섰다. 해외 매출 비중도 30%가 채 안 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3년 내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회장은 공격적 투자와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비전 달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매년 2조 원을 남지 못했던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려 올해에만 5조 원을 본격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올 초 신년사에서 CJ제일제당의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구축, CJ푸드빌의 해외 점포 확대, CJ대한통운의 미국·유럽 M&A 등을 공표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의 부재 당시 그룹 전면에 나서 경영을 주도했던 이미경 전 부회장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부회장은 1995년 드림웍스 투자로 문화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0년간 CJ의 영화와 방송, 음악, 극장 등 문화 관련 사업을 총괄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서 모습을 감췄다. 이 회장과 같이 CMT를 앓는 이 전 부회장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CJ그룹 내 문화사업의 매출 비중이 20% 수준까지 성장한 데다 향후 글로벌 문화사업 등을 고려해 이 전 부회장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CJ그룹은 이 회장 중심으로 체제를 준비하고 있어 이전처럼 '남매경영'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조남호 기자 sprdan@

한화, 防産사업 재편... '글로벌 톱10' 정조준

한화테크윈, 4개 법인으로 쪼개 '사업 전문화' 항공엔진 등 존속·방산은 분할 '효율성 제고'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해 방산산업 몸집을 키워온 한화그룹이 '글로벌 톱10' 종합방산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 정비에 나섰다.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이 4개의 독립법인으로 회사 분할을 결정한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화그룹 내 방산사업 계열사 간 사업영역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방산사업본부 △에너지장비사업본부 △산업용장비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분체하는 것에 의결했다. 분할 기일은 7월 1일이다.

사업분할이 완료되면 한화테크윈은 존속법인 한화테크윈과 자회사 한화디아나믹스 주식회사(가칭), 한화파워시스템 주식회사(가칭), 한화정밀기계 주식회사(가칭) 등 4개 회사로 나뉘게 된다.

기존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는 지상방산사업이라는 공통분모를 고려해 새로 설립되는 방산회사의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결

정했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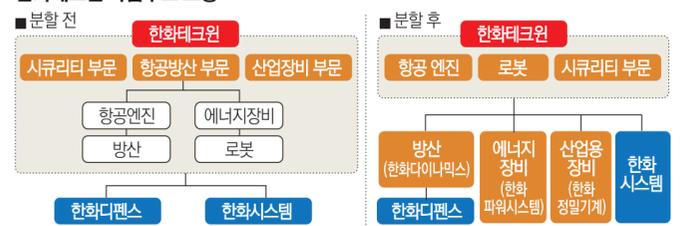
또 시큐리티부문은 이번 분할 결정에서 제외돼 존속법인인 한화테크윈에 남게 된다. 그러나 한화테크윈 내 다른 사업부문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독자 브랜드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인적분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분할은 한화테크윈이 영위하는 항공엔진과 지상방산, 시큐리티와 산업용 장비 등 사업들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 간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어 독립법인으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분할 후 존속법인인 한화테크윈은 항공엔진 사업에 전념하고, 협동로봇 등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사업본부는 자회사로 편제될 한화디펜스와 지상방산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그룹 내 또 다른 방산회사인 ㈜한화 방산부문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

한화테크윈 사업구조 조정



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장비 사업본부와 산업용장비부문도 독립회사로서 의사결정의 스피드를 높이고 내실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분할 결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연계성이 높은 사업 간 신설법인 설립으로 효율적 비용 및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M&A를 통한 몸집 키우기에 나서면서 조래된 사업부 간 이질성을 해소하고 독립 경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이어진 M&A로 인해 규모는 커졌지만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정비작업이 필요했다"면서 "올해는 방산사업 계열사 간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재편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처음부터 바르게 담은 **천심본**

천호식품

딱 이번 주만! **천심본 출시 기념 대한민국 면역유익 이벤트**

전화만 주셔도 일주일분의 천심본 홍삼세트 무료 증정

- 선착순 1,000명 -

천호식품이 처음부터 바르게 담은 홍삼 브랜드, '천심본' Point1. 6년근 홍삼 직접 계약 수급부터 제조까지 100% 자체 생산한 홍삼 브랜드 Point2. 봉인 후 이력추적 시스템 가동 및 제품에 검사성적서 동봉 Point3. 고객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소비자 검증 시스템 도입

지금 전화로 간편하게 천심본 무료 홍삼세트를 신청하세요.

*전국 롯데·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신청 가능 / 기타 매장은 1522-1005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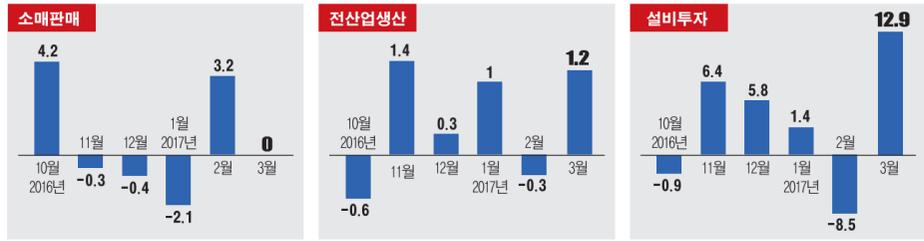
무료 신청 1522-1005 *인 1회 참여 가능

매장 방문 시 홍삼세트 무료 신청권

생산·투자·소비 '3박자' 경기회복 '파란불'

지표로 본 '경제 신호등'
 '전산업생산' 한달 만에 반등
 자동차·전자부품 상승세 견인
 설비투자, 3년5개월만에 최고
 '사드' 악재에도 소매판매 선풍
 소비심리지수 4.5포인트 상승

3월 산업활동 동향 (단위: %)



수출에 이어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까지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한국경제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다. 올해 3월 소비 역시 전월과 같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수치다.
 2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집계한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소비,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이전보다 상승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에서 내놓은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증가율로 놓고 보면 지난해 11월(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광공업생산이 가스·수도 사업에서 감소했으나, 제조업과 광업에서 늘어 전월보다 1.0% 늘었다. 더욱이 제조업생산이 금속가공, 1차 금속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4월 제조업 연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83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조업 연합 BSI는 지난해 12월 72에서 올 1월 75로 오른 이래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수치는 2012년 5월(83)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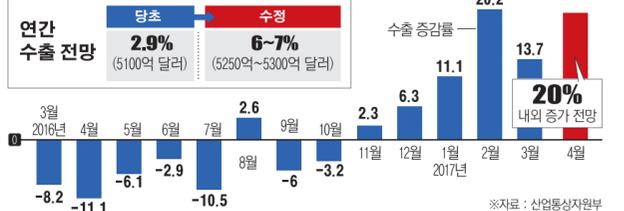
장 높은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3.7%)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12.9%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0월(14.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과 같은 보합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했다. 전월 소매 판매(3.2%) 수치가 보타리상인들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앞두고 화장품과 신발 등 비내구재 사재기에 나서면서 크게 높아진 기저효과가 컸다는 진단이다.
 실제 이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요약)'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2로 전월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4.9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수출 역시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 대부분의 지표가 회복흐름이 뚜렷한 모습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그 동안 경기가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번 지표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졌다"며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회복은 완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수출, 6개월째 증가... 올 전망치 7%로 상향

2년 연속 감소세 침체기 딛고
 지난해 11월부터 반등 성공
 한국경제 전반에 '溫氣' 전달
 美보호무역·中사드보복은 변수

월별 수출 증감률 (단위: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등 악재가 상존해 있어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2017년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올해 연간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2.9%에서 6~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이 수출 회복을 주도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수출금액을 5100억

달러, 증가율을 2.9%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면서 수출금액은 5250억~5300억 달러, 증가율은 6~7%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를 실현한다면 전년 대비 19.0% 증가율(연간 수출금액 5552억 달러)을 기록한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주 장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

을 견인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수출이 14.9% 늘어났고, 4월 수출도 20% 내외 증가율이 예상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전망치를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수출도 20% 가량 오르면 6개월 연속 증가다.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우리 수출은 최근 2015년과 2016년 연간 기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세계경제가 완만

하게나마 회복세를 타면서 지난해 11월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이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한국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 자국우선주의 여파가 최근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정부는 외국인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대폭 인상시키기도 했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도 경기회복을 저지할 조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있다"며 "수출이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수출 다변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외제차 '손해 보험금' 논란

보험가입금액 대로 주라는 금감원 손보사 "차량時價 기준 지급" 맞서

금융감독원이 외제차 전손 차량 보험금 지급 절차를 검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제차 보험금 과소 지급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체 자동차사고 가운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외제차 전손 비중이 미미한데다, 개별 사고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른 보험금 지급 형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손보사 '빅4'를 전방위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과잉 반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차량가액 기준 논란... '현재하계'란 악관 문구 해석 불분명 = 손보사들의 외제차 전손 보험금 논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 문구에서 시작된다.
 이번 검사 대상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항목에 없는 외제차 전손 보험금 사례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문제는 차량기준가액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다. 이번 가격 변동 차이를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 시가로 비교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보

으로 평가상각되는 수치로 판단하고 있다. 30%는 웃돌아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산차 가격도 1년이 지나면 10% 자연감소 되는 데 외제차의 차량가액 10%는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다만, 감가를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인지, 감가를 적용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제차 전손보험 노린 도덕적해이 우려... 차량 기준가액 기준 명확해야 = 업계에서는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시가가 아닌 차량기준가액(또는 보험가입금액) 위주로 책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표현이 '현저하게'이다. 업계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자동차보험 가입금액과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10%만 되면 감가상각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10% 정도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연적

실제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가 적용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가 적용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가 적용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가 적용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인 차를 1500만 원에 불법 구입해서 4000만 원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전손이라고 할 경우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시만 따져봤을 때 외제차 수는 37만4236대로 집계됐다. 1년 만에 5만 대 이상 늘어났다.
 외제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집적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지희·박규준 기자 jnsseo@

신용의 상징-버들표
유한양행

활성비타민, 흡수력부터 따지세요

더 강력해진 베콤씨 액티브가 새로 나왔습니다
베포티아민 성분으로 8배 더 높은 흡수율! (타이민다실패드 대비)

육체피로 / 신경통 / 근육통 / 관절통 / 눈의 피로

일약 크기가 1/2로 작아졌어요!





8배 높은 흡수율로 더욱 강력해진
베콤씨 액티브정



광고심의일련: 2017-1392-3005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동해 대륙붕 석유개발 추진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동해가스전 방문해 생산현장 점검 2019년 생산종료 앞두고 8광구·6-1광구 북부 추가탐사

대한민국에 95번째 산유국 지위를 얻 겨준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가스생산 시설)이 오는 2019년 생산 종료에 예정 된 가운데 정부가 대륙붕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오전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 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국내 대륙붕 개발은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연내 석유 발견이 유망한 8 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에 대한 탐사 권을 재설정해 추가 탐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대륙붕 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은 2007년 부터 지난해까지 석유공사(50%)와 우드사이드社(50%)가 탐사를 추진, 유망 한 구조가 발견돼 추가 탐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동해-1 가스전에서 남서쪽으로 5.4km 지점에 있는 동해-2 가스전은 지난해 7

월부터 생산에 들어가 5만2000톤의 천연가스와 4만1000배럴의 컨덴세이트(초 경질원유)를 생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7월 석유공사를 통해 동해-1 가스전의 상업생산에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동해-1 가스전이 2018년 10월, 동해-2 가스전이 2019년 6월 까지 생산 종료에 예정돼 자칫 산유국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륙붕 탐사를 위해 특별용자와 대륙붕 개발정비에 대한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은 지난해 일본도 인접지역에서 시추를 추진할 정도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가 산유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은 그간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동해가스전 개발 현황

위치	동해-1	동해-2
중부지역	남서쪽 5.4km	자점
생산기간	2004.7~2018.10	2016.7~2019.6
생산수량	천연가스 381만 5000톤, 컨덴세이트 322만 배럴	천연가스 5만 2000톤, 컨덴세이트 4만1000배럴
투자비	8억2600만 달러	1억4200만 달러
매출액	18억5500만 달러	3100만 달러
조관전자	석유공사(100%)	석유공사(70%), 포스코대우(3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온 석유공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합심해 경영 쇄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투자절감, 자산매각, 투자유지 등)을 이행했고, 영업손익 적자 규모를 크게 감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4분기에 2년 만에 분기 영업흑자로 전환했고, 올 1분기에 2 연속으로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석유공사는 다른 국내 대륙붕 성공 선화를 만들기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국내소비 부진한데...해외서는 '평평'

1분기 민간소비 전분기 대비 0.4% 증가 그치며 침체 계속돼 서비스 수입 4.8%↑ 2년9개월 만에 최고...사드보복 영향 수치화

소비 부진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불꽃 소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도 경제 관련 수치에 잡히기 시작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이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0.9%(전기 대비 기준)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2015년 4분기 정부가 블랙프라이데이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등 소비 촉진이 힘입어 1.5% 증가를 기록한 이래 부진한 흐름을 지속 중이다.

반면 거주자의 해외소비를 대부분 반영하는 서비스 수입은 전기 대비 4.8% 증가해 2014년 2분기(5.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즉, 서비스 수입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거주자가 해외에 나가 사용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음식료와 휘발유를 포함하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등 국내소비는 줄어든 반면 해외 출

자 증가 등으로 거주자의 해외소비는 많이 늘었다. 이는 출국자수 자료와 여행수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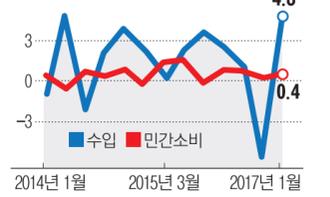
서비스업 증가율도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이는 2009년 1분기(0.0%)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심리와 관광객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기 대비 1.2% 감소해 지난해 1분기(-0.2%)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4.8%) 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도 전기보다 0.8%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정 국장은 “중국의 한국 여행 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삼성전자 휴대폰 신제품 갤럭시S8 출시 대기에 따른 휴대폰 구매 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

민간소비 및 서비스 수입 증가율



1분기 중 해외관광객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했다. 반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3월 한 달만 볼 경우 해외로 나간 관광객수는 23.7% 급증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관광객수는 11.2%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집계하는 국제수지 중 여행수지도 2월 현재 11억7350만 달러(1조3436억 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발과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상황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월에는 CCSI 지수가 93.3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8)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서울 북촌에 태국어 관광안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27일 서울 북촌문화센터 앞에 태국어 추가된 문화재 설명문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8월까지 이태원, 홍대, 강남 등에 순차적으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호승기업·태우산업 등 4개사 '원샷법' 추가 승인

지난해 8월부터 총 32개 업체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호승기업·태우산업(조선기자재), 금강스틸(철강), 캐스트정보(방송기자재 유통) 등 4개 기업이 기입협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샷법 적용 기업은 총 32개 업체로 늘어났다. 원샷법은 작년 8월부터 시행돼 매월 4~5건의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서비스 기업이 사업재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서비스 업종에서도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편단단’이 주요 매출원인 중소기업

금강스틸은 생산설비 매각으로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파우더형 강관용 폴리 에틸렌 코팅기술’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호승기업은 두 개의 공장(녹산, 명례) 중 하나(녹산)를 매각하고 기존에 보유한 오수처리 기술과 신규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산·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분야로 신규 진출하기로 했다.

태우산업은 자회사인 태우엔터를 통해 생산 공장·설비를 확충해 전일업 자동채취기 제조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중 사드보복에도 부산항 환적 물동량 '깜짝 증가'

3월 86만2000TEU... 지난해보다 5.5% 늘며 8개월 만에 증가세

부산항 환적 물량이 한진해운 사태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8개월 만에 깜짝 증가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환적물동량은 총 3억8992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전국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한 649만 4000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록했고, 비(非)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억7854만 톤으로 3.1% 증가했다.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수출입 물동량은 작년 1분기 대비 3.6% 증가했지만, 환적물동량(248만4000TEU)은 5.7% 줄었다. 환적이란 컨테이너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중간 항구에서 다른 배에 옮겨 실는 것을 말한다.

1분기 부산항의 컨테이너 수출입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

항만	2014년 1월	2015년 2월	2016년 3월	2017년 3월
부산항	4453	4850	4808	4861 (1.1%)
인천항	603	562	580	695 (19.9%)
광양항	521	539	579	530 (-8.6%)

물동량은 237만6000TEU로 작년보다 2.1% 늘었고, 환적 물동량은 241만 1000TEU로 2.9% 줄었다.

고무적인 것은 3월에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이 86만2000TEU로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는 점이다. 작년 8월

부터 감소했던 부산항의 환적 물량이 8개월 만인 3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한진해운 사태 여파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김해정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적 선사가 지속해서 한진해운 물량을 흡수하고 있고, 4월 알라이언스 재편을 앞두고 주요 선사들이 이용 선박을 교체하려고 부산항에 내린 화물이 늘어서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이 3월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4월부터 해운동맹이 2(과 디 알라이언스, 오선 3개로 재편된다. 이들 3개 알라이언스는 모두 부산항을 주요 환적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 과장은 “현재 이들 선사의 스케줄 전망치가 나오긴 했는데 물량이 어떻게 재편될지 전망대로 될지는 실제 운항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4~5월 물동량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VAO My Life Monthly Magazine

05 vol.29 MAY 2017

배우 정동현의 회로애락

그사람, 관찰했었는데... 자연 채식의 수수하고 담백한 맛 제221생 '문화해설사'

family trip

정기 그리울 때 떠나는 가족여행

COVERSTORY 가족여행

PART1. 속앓이 쏟아내는 '재미' 가족들과 나누다 류시호 시인·수필가

PART2. 꿈 많은 아바와 딸의 꿈같은 청춘여행

PART3. 58년 개띠 아버지와 88년 용띠 아들의 용기백배 세계 일주

PART4. 딸은 엄마랑 아들은 아버지랑, 따로 특별했던 그 여행

PART5. 80세 엄마와 특별한 동행 최은주 동년기자

문학과 담시기 영인문학관

文人戀情, 문인을 향한 영정 쌓이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편한 것이 좋고, 느린 것은 싫고, 오랜 것은 쉬이 버려버리는 요즘 세상, 옛 추억을 끄개 간직하고 진정한 사람으로 그리워하는 문인들의 인식차가 있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영인문학관이 바로 그곳. 문학을 가득 메운 모든 공간과 기운은 이 세상 모든 문인에게 보내는 영정이다. 컴퓨터 모니터 앞, 최첨단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깊게 내쉬어보고 싶다면 바람 잔잔히 와 있는 그곳에 가보시라.

5월의 산책

부처님오신날, 손주와 함께 영인 나들이

올해 5월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석가탄신일(3일)은 어린이날과 가까워 손주와 함께 나들이 갈 곳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와우정사에 들러보고, 인근 영인농촌테마파크까지 즐겨보는 것 어떨까?

신라보가 만난 사람

“자식 잘 키워낸 노후가 행복해져요” 자녀교육의 대모 전해성 박사님 알려다

“음식을 의식주의 하나가 아닌 마음으로 보라”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조화를 말하다

“미용이 아바 배우 한갑수 태몽을 지니니 미용 인생이 찾아왔다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채식의 수수하고 담백한 매력

마늘, 파, 부추, 달래, 무릇(홍가) 등 우리 사찰에서 금하는 다섯 가지 채소를 '오신채(五辛菜)'라고 한다. 재료의 성질이 맵고 향이 강해 수행에 방해가 돼 먹지 않는다. 사찰음식의 개념을 넘어 '한국 전통 채식'의 의미를 더한 무신채(無辛菜) 식단을 지향하는 맛집 '마지'를 찾아갔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20년째 도인처럼 사는 '남궁옥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포크송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남궁옥분은 이기적일 정도로 행복을 집착한다. “우주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녀는 “태양도, 나무도, 꽃도, 사철물도 언제 울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 아름답게 자라고 흐르는구나”라고 생각한다든 것.

동년기자의 페이지

최원국·이경숙·손은영·변용도·박종섭 동년기자 그 사람, 참 관찰했었는데...

부치지 못한 편지

황경춘 언론인 여자 친구,업에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강남구 집값 11.75%↑...보유稅 7년

국토부, 2017 공동주택 공시지가

1월1일 기준 전국 평균 상승률 4.44%
강남3구 9.74%...서초·송파 뒤이어
청담동 '마크힐스' 稅 1000만원 늘듯

서울 강남3구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0.4	3.1	5.97	4.44
서울	-0.9	2.4	6.2	8.12
강남 3구 (서초·강남·송파)	0.1	3.5	7.31	9.7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년 연속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24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4%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은 2016년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3억 원 이하 주택은 1.17~4.25% 올랐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5.71~8.97%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또 6억 원 초과 주택의 41%는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은 8.12% 오르며, 지난해(6.20%)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은 9.74%를 기록했다. 구별로 강남구는 11.75%, 서초구는 10.05%, 송파구는 6.73% 올랐고, 강남4구에 들어가는 강동구도 6.6% 상승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48억1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76% 오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원(전용면적 273.84㎡)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124만7000원에서 올해 3187만 원으로 50% 늘어난다. 올해 2위 자리에 오른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8㎡)도 보유세 부담이 2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는 3844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5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 부담이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105%, 3억~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여기어때. '징벌 배상' 첫사례 될까

개인정보 99만명 유출 줄소송 움직임
이용객에 협박성 문자 피해 구체적
실제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에
업체 과실 입증 완화...소송 가능성

'여기어때' 서비스 해킹 개요



34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온라인 숙박업체 '여기어때'가 줄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강화되고,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 많아 업체 측이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여기어때' 홈페이지를 통해 총 99만584명, 중복건수를 합하면 340여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전례에 비춰봤을 때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해 대규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협박성 음란문자가 발송되는 등 피해가 구체적이다. 업체 측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취해야 할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정보 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커는 '여기어때' 마

케팅센터 홈페이지를 'SQL인젝션' 수법으로 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홈페이지 질문 사항을 조작해 정상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기어때' 측의 홈페이지가 이 수법을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시킨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법정 손해배상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1월 도입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업체 측이 실

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보안책임을 다했는지를 소송을 낸 쪽이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일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지는 일이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시점으로 꼽히는 '옥션 소송'의 경우 14만6000여 명이 소송에 나서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7년 만에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중국인 해커가 옥션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고객 10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갔지만, 업체 측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에서다. 고객 3577명이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면서 롯데카드가 3억57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1인당 위자료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좌영길 기자 iy97@

세계 와인 한자리에



'2017 서울국제와인&주류박람회'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와인을 시음하고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23개국, 250여 개사가 참가해 와인, 맥주, 칵테일 보드카 등 약 5000종의 국내외 주류를 선보인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외국계 증권사 겨누는 국세청 UBS·글로벌마켓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 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유비에스(UBS)증권 서울지점과 씨티그룹 산하 글로벌마켓 증권에 각각 투입,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외국 투자법인과 국내법인 가운데 국제거래가 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탈세와 해외거래를 조사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 스위스계 UBS증권과 글로벌마켓증권 이외에도 외국계 증권사 수곳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거래조사국 조사 특성상 대부분 세무 및 회계 자료를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조사 강도는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UBS증권과 글로벌마켓증권 외에 국내서 영업 중인 글로벌 금융사 지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甲 농락한 乙...현대차 협력사 담합 1800억 부당이득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알루미늄 합금 납품가를 담합해 1800억 원대 이득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담합으로 300만 대가량의 부품 원가가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7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B사 대표들을 비롯해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총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알루미늄 합금 가격과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해 총 1조8525억 원 상당의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런던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시세와 환율 등 계산을 통해 발주자들의 내부 검토가를 예측하고 입찰에 응했다. 납품된 물건은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서 자동차 실린더헤드와 변속기 등을 만들 때 쓰였고, 업체들은 1800억 원의 이득을 봤다.

담합 방지를 위해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은 입찰을 같은 날 실시하거나 입찰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늘리는 등 업체들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도록 구조를 개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납품업체들은 입찰 전날 회의를 열어 담합을 의논하고, 탈락한 업체들로부터 알루미늄 합금 제품을 구매해주는 등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좌영길 기자 iy97@

한국의 펀드베테랑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1861호(2017.04.21~2018.04.19)

펀드를 몰라도 R아서 다 해주니까

투자도 관리도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펀드 R아서

한국투자 TDF R아서 펀드 시리즈

은퇴시점에 맞게 알아서 해주는 한국투자 TDF 알아서

R아서 Rebalancing 한국인 생애주기에 특화된 자동 자산배분
R아서 Risk-management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은퇴시점에 맞게 알아서 조절
R아서 Return 7가지 은퇴시점별 펀드 구성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한국투자 TDF 알아서 펀드 시리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펀드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운용: 연 0.62~0.78%)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신탁운용

“수시채용 검토” 신한銀 상반기 公採 없을 듯

위성호 행장 “비슷한 스펙 의미 없어”
“공채 연기 대신과 연관” 일부 시각도

신한은행의 올해 상반기 일반직 공채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취임한 위성호 행장의 의중에 따라 채용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위 행장은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와 같이 유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몇 백명씩 뽑는 게 유의미하지 모르겠다”며 채용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시중은행들은 주로 상반기에 영입절차 업무 담당 고졸(특성화고) 행원을 선발하고 하반기에 일반직을 채용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국내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상·하반기로 나눠 대졸 신입(일반직) 공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100명, 하반기 200명을 각각 뽑았다.

에초 신한은행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달 중순께 상반기 공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채용 인원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공채 계획은 미정”이라며 “채용 시스템 개편 작

업이 끝나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는 신한은행의 공채 공고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일반직 채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11일에 달하는 5월 황금연휴와 하반기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도 상반기 공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한은행이 공채 시스템을 기존의 상·하반기가 아닌 수시 채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 행장은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틀을 깨겠다”면서 “신한은행의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탈(脫) 스펙’ 채용 문화에 뜻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는 신한은행의 상반기 공채가 늦어지는 이유를 대선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일자리 창출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채용 확대에 대한 압박이 세질 것”이라며 “하반기에 채용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케이뱅크 인기로...인터넷은행 ‘한곳 더’

금융위, 6월 카카오뱅크 이어 인가 추가
은행들 자체 모바일뱅크 별도법인 설립
인터넷은행으로 새출범 가능성도 높아
케이뱅크 지분 10% 투자 우리銀 ‘균침’

케이뱅크가 출범 24일 만에 가입자 24만 명을 넘기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가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며 경쟁이 촉진되자, 6월 카카오뱅크에 이어 또 다른 ‘메기’를 풀어 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6월 말 문을 여는 카카오뱅크의 출범을 차질 없이 진행한 후 산업자본이나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정비되면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나서는 것은 케이뱅크의 초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뱅크가 등장한 후 금융권은 가격 경쟁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 강화에 돌입했다. 케이뱅크가 기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자, 연 2%대의 특관 예·적금을 판매

하기 시작했고,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2금융권인 SBI저축은행은 최근 연 5.9%의 대출 상품까지 출시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비대면 채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비트모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무방문 신규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이미 이달 5일부터 은행채권 대출에 대해 씨나뱅크를 통한 비대면 채널 서비스에 들어간 상태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계획이 알려지자, 시중은행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 모바일뱅크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해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할 가능성도 높은 까닭이다. 신한은행(씨나뱅크), 우리은행(우리뱅크), KEB하나은행(원큐뱅크) 등은 이미 케이뱅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케이뱅크에 지분 10%를 투자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우리은행 직원 20여 명이 공모절차를 통해 케이뱅크를 입사했지만, 3년 후 원한다면 우리은행에 복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금융위의 계획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이달 초 문을 연 케이뱅크는 26일 기준 24만 명의 고객을 모았다. 출범 24일 만이다. 예·적금은 2848억 원으로 케이뱅크의 올해 연간 수신 목표 5000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대출은 1865억 원이 나왔다. 올해 대출 목표인 4000억 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남주현 기자 jooh@

업무정지 안진, 4월 말 인력이탈 현실화되나

통상적으로 감사업무 끝나 이동 활발
1월 1115명→3월 1092명 꾸준히 줄어
성과급 조기지급 등 이탈 방지 고심

달로이트안진을 중심으로 한 회계법인 인력 이동이 현실로 다가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안진의 구성원수는 올해 1월 말 1115명에서 1108명(2월 말), 1092명(3월 말)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달로이트안진의 ‘1년 업무정지’가 현실화되면서 안진과 계약을 맺고 있던 상장사 80여 곳이 다른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게 되는 등 안진의 감사 부문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회계법인 빅4(삼일·삼정·안진·한영)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기아자동차, 두산밥캣, LG 유플러스 등 50여 곳은 벌써 다른 3대 회계법인으로 옮겼다.

때문에 업계는 안진의 인력 이탈이 이달 말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4월 말은 통상적으로 감사업무가 끝난 회계사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여서 안진을 중심으로 회계업계 내 인력 대이동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소규모 인력 이동은 이뤄지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팀 단위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소수 인력이 넘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진이 인력 유출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안진은 회계사들이 나가는 것을 붙잡기 위해 성과급 조기 지급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진 소속 일부 회계사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느끼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달로이트가 안진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0@

信保 “성실하게 빚 갚으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채무자 4000여명 年 3억 혜택 전망
캠코 등 금융공공기관 확산 관심

신용보증기금이 26일부터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는 부실 정상화 또는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28일 신보에 따르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1건당 통상 7만~8만 원 정도의 해제비용을 부담하던 연간 4000여 명의 채무자가 약 3억 원 내외의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 제도 실시로 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상당수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 부

담 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를 비롯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 7개 정책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신보가 최초로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제도가 다른 금융 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타 금융 공공기관들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실채권 정리 기능을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일 창구가 될 캠코는 주로 담보권 실행이 끝난 상각채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기관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공공성이 큰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제도 시행에 관한 검토 작업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ikpark@

기업 PR

형사처벌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때 운전자 손실 보장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삼성화재는 중상해 사고 시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운전자의 비용손실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를 선보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횡단 보도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필요한 보험이다. 여러 사고로 발생하는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살펴봐야 할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삼성화재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운전자 벌금’,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사가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장 여부 및 금액을 체크해야 한다.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고혈당 문제 심화로부터 해방될 길소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며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우수 녹차 성분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녹차에서 찾은 현대인의 체지방 관리 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쉽게 늘고 관리하는 점점 어려워지죠
고지방, 고탄수화물, 고당류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을 돕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식습관 속 대사 건강을 관리합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 솔루션, 바이탈뷰티



VITALBEAUTIE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전화: 080-023-5454



떠나요~봄여행!
즐거어요~봄시장!

시장애봄

2017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4.29~5.14

2017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200여개 전통시장 공동이벤트

이벤트 하나 전통시장에 와~ 봄

전국 어느 전통시장이어도 좋아요~
축제기간 중 전통시장 방문 인증샷을 #2017전통시장봄내음축제'로 달아 개인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로 올려주시거나 1666-1748 문자로 참여하시면, 축제 후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냉장고, 노트북, 온누리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이벤트 둘 전통시장에서 '로보카폴리'를 만나~ 봄

지금 전국 200여개 '2017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시장에서 특별한 '로보카 폴리' 포토카드를 받고 스탬프투어를 즐겨보세요. '로보카 폴리' 포토카드 뒷면에 도장을 받은 인증샷을 '시장애' 페이스북 이벤트페이지에 댓글로 참여하세요,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대형 TV, 최신 스마트폰, 디카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4.29, 5.5, 5.6, 5.13 / 오후 1시~6시)

이벤트 셋 전통시장, 우연히~ 봄

4월 28일, '2017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16개 거점시장 인근에서 '전통시장 보물찾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여행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뽐뽐한 경품이 적혀있는 800개의 보물쿠폰을 찾아보세요. 쿠폰을 찾으셨으면 찾은 장소에서 쿠폰인증샷을 #전통시장보물찾기'로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선착순 50명에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시작 시간과 자세한 장소는 4월 28일 10시에 '2017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시장애(愛)'를 통해 공개됩니다.



LG-DIOS냉장고 2명



LG-GRAM 노트북 4명



온누리상품권 30만원 20명 외



LG-OLED TV 1명



삼성 갤럭시 S8 5명



SONY 미러리스카메라 10명



온누리상품권 10만원 30명 외

- 모든 이벤트의 인증샷은 전체공개로 설정해서 올려야 참여가 되며,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실제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시장애(愛)' 홈페이지(www.sijangae.or.kr)와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非정유가 더 쏠쏠... 본업 뒤바뀐 정유사

지난해 이어 올해 1분기도 호실적 비정유)정유... 영업의 비중 '역전'

SK이노, 美다우케미칼 사업 인수
에스오일·GS칼텍스도 설비 증설

비정유부문 투자 더 늘어날 전망

국내 정유사들이 본업인 정유사업보다 비정유 부문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자회사들을 통해 다양한 비정유 부문 사업에 진출해 왔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요동치는 정유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해 전체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매출 11조3871억 원, 영업이익 1조43억 원을 기록해 역대 세 번째 분기 1조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석유사업에서 45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반면 화학과 윤활유 사업에서 각

정유사 부문별 영업이익

(단위: 원, GS칼텍스는 2016년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SK이노베이션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정유부문	4539억	1002억	2295억	1조3762억
비정유 부문 (석유화학, 윤활유 등)	화학: 4547억 윤활유: 949억	화학: 1396억 윤활유: 841억	약 1000억 (추정)	화학: 5206억 윤활유: 2418억

각 4547억 원, 9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체 영업이익 비중에서 55%를 차지해 기존 주력사업이었던 석유사업의 비중을 앞질렀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SK인천석유화학을 통해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납사를 재가공해 산업의 원자재를 만드는 기초소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SK루브리컨츠를 통해서엔 엔진오일의 원료인 윤활기유(그룹2·그룹3)를 생산하고 있다.

에스오일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2000억 원, 영업이익 3238억 원을 기록했다. △정유 부문 영업이익 1002억 원 △석유화학부문은 영업이익 1396억 원 △윤활기유 부문은 영업이익 841억

원을 기록했다. 비정유 부문은 영업이익 비중에서 69.1%를 차지했다. 에스오일 해 기존 주력사업이었던 석유사업의 비중을 앞질렀다.

현대오일뱅크는 올 1분기 매출 4조2847억 원, 영업이익 3548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정유사업이 229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비정유 부문에서는 약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엘베이스오일, 현대캐미칼, 현대OCI 등을 통해 비정유 사업에 진출했다.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GS칼텍스도 지난해 2조1404억 원 영업이익 중 석유 화학과 윤활기유 등 비정유 부문이 762

억 원을 책임졌다. 전년 6652억 원보다 14.6% 더 벌었다. GS칼텍스는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부품재료인 복합수지와 윤활기유, 바이오화학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정유사들은 비정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 투자계획을 3조 원으로 밝혔으며, 최근에는 미국 다우케미칼의 에틸렌아크릴산(EAA) 사업부를 4200억 원에 인수했다. 에스오일은 지난해 5월부터 총 4조8000억 원을 투자해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인 전사우 고도화와 올레핀다운스트림(RUC & ODC) 프로젝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GS칼텍스는 5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는 바이오부탄올 데모플랜트의 완공을 올 하반기 앞두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2020년까지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이 중 30% 이상을 비정유 부문에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산설비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LG부품사, 또 희비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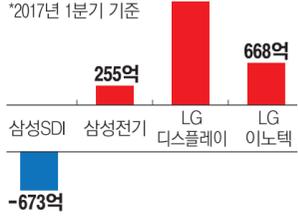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삼성과 LG 부품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LG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삼성은 여전히 부진이 이어졌다는 평이다.

28일 업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호조에 따라 1분기 9조898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삼성SDI와 삼성전기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놨다.

삼성SDI는 영업적자 673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475억 원 적자)를 밑돌았다. 2월 발생한 중국 천진 공장 화재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폴리머전지 관련 매출이 감소하며 소형전지

삼성·LG 부품사 영업이익

(단위: 원) *2017년 1분기 기준



사업부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따라 중대형 사업부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 및 기관을

‘삼성 SDI’ 1분기 673억 손실... ‘삼성전기’ 기대치 못미친 255억 영업이익
‘LG이노텍’ 영업이익 1만6421% 급증... ‘LGD’도 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

공급하는 삼성전기도 시장 기대치(300억~350억 원)에 못 미치는 2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듀얼 카메라 및 갤럭시S8 공급 효과로 디지털 모듈(DM) 사업부의 실적은 크게 개선됐지만, 기관(ACI) 사업부의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두 부품사 모두 갤럭시S8 시리즈 실적이 반영되는 2분기부터 실적 전망이 밝다. 특히 삼성SDI는 2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응용 투자 이원식 연구원은 “2분기 매출 1조4700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LG 부품사들은 4분기 실적에 눈에 띄게 개선됐다. LG이노텍은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만6421.3% 급증한 668억 원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사양인 듀얼 카메라 모듈의 안정적 판매와 LG전자의 G6형 카메라 모듈 본격 양산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LG디스플레이도 영업이익 1조270억 원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대면적 트랜드에 발맞춘 대형 TV와 차별화된 IT 제품 등 수익성 위주 제품의 믹스 운영을 통해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 거버넌스위원회 신설

지배구조 개선·주요 경영사항 등 심의

삼성전자가 27일 지주회사 전환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같은 날 ‘거버넌스위원회’를 설립했다. 신설된 거버넌스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주요 경영 사항의 심의 등을 맡게 된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밀그룹을 그릴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작년 11월 말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담긴 거버넌스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거버넌스위원회에는 삼성전자의 사외이사인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들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의 심의와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존 CSR 위원회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계와 시장의 관심은 삼성 전자 지배구조 개선의 향방이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심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주사 전환 철회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현재의 지분구조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를 경영하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경희 삼성전자 회장(3.5%), 이재용 부회장(0.6%) 등 오너 일가와 삼성물산·삼성생명 등 계열사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치면 18.2%다. 송영록 기자 syr@



북유럽 중동서도 ‘삼성페이’ 서비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27일(현지시간) 북유럽과 중동 지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북유럽 중 스웨덴에서 유로카드, 노디어 등 현지 7개 카드·은행과 협력해 삼성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파트너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삼성페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며, 현지 유력 은행인 ADCB, 에미레이트 NBD 등 9개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홍콩과 스위스에서는 사전 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현대중 내홍 격화...“자격증 없다” 32명 징계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현대중공업이 26일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 전환배치 대상자 32명에게 ‘정직 2주’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이하 모스)는 지난해 9월 분사된 각 사업본부에 운영하던 설비지원 부문이 합쳐진 회사로, 분사 사업장 인력이 모스로 전환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전환배치를 거부한 580명에게 새 직무를 부여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시했다.

전환배치를 거부한 직원들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ABS 선급 국제용접 자격증’(fcaw-q2)과 도장사 3급 두 종류

인력 구조조정 범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전환배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새 직무를 부여한 뒤 기술교육원에서 6주간의 직무향상 교육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추가로 4개월의 시간을 더 주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니다”며 “전환배치를 거부한 사람 중 95% 이상이 자격증을 따서 새로 배치됐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고 32명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

LG MC사업부가 ‘달라졌어요’

구조조정·스마트폰 선전... 분기손실 4670억→2억 ‘뚝’

2분기엔 ‘G6 글로벌 공략’ 집중... 적자 탈출은 미지수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부가 사업 구조조정, 프리미엄 스마트폰 ‘G6’와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라는 3박자를 갖추며 적자폭을 대폭 줄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방에도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8분기 연속 적자라는 불명예 타이틀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LG전자는 MC사업부의 1분기 매출액이 3조1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전 분기 대비로는 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손실은 2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4분기 영업손실 4670억 원보다 적자폭을 줄였다.

MC사업부의 선방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해 온 사업구조 개선 활동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보다 한 달여 앞서 G6를 출시한 점도 1분기 실적 개선에 일조했다. G6는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실속형 제품군에서 X시리즈와 K시리즈 또한 판매량 확대를 뒷받쳤다. LG전자의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148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전 분기 대비

5%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하는 데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2분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바일 사업 경쟁력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G6 판매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G6의 글로벌 출시를 내달까지 완료하고 국가별, 사업자별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LG전자가 2분기 흑자 전환을 단언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8의 흥행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2분기 흑자전환 가능성에 대해 “G6가 글로벌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1분기를 기점으로 사업체제의 건전화 기조는 더욱 강화되는 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한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기업 PR

질소커피, 거품에 반하고 맛에 놀라고

엔제리너스커피 ‘나이트로 콜드브루·티’ 4종 출시

엔제리너스커피가 질소를 주입한 ‘나이트로 콜드브루’를 새롭게 전 매장에 출시하며 공격적으로 커피 트렌드 주도에 나서고 있다.

엔제리너스는 28일 ‘나이트로 콜드브루’ 2종과 ‘나이트로 티’ 2종 등 총 4종을 휴게소 등 일부 특수점을 제외한 전 매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커피 2종은 오렌지의 상쾌한 신맛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인상적인 에티오피아 원두를 콜드브루로 추출한 나이트로 아이스커피 ‘싱글오리진 오리지날’과 달콤하고 감미로운 헤이즐넛을 즐길 수 있는 ‘싱글오리진 헤이즐넛’이다. 또 2종은 강렬한 붉은색 색감과 새콤한 라즈베리 향이 돋보이는 허브티 ‘히비스커스 라즈베리’와 세계 3대 향차로 꼽히는 달콤하고 은은한 장미향의 우바티에 상쾌한 엘더플라워를 담은 ‘우바 엘더플라워티’다.

여기서 ‘싱글오리진’이란 특정 국가에서 특정 생산자가 당해 수확한 생두로 만든 커피를 의미한다. 엔제리너스는 시즌별로 트렌드에 맞는 원두를 선정하며 엄격한 관리와 친환경 생산 공정을 통



해 원두 본연이 가진 고유한 향과 맛의 차별화를 통한 최상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질소를 주입하는 전용 머신 ‘나이트로 캐그’를 도입해 정통 방식으로 콜드브루와 티를 즐길 수 있다. 엔제리너스는 이처럼 지속적인 트렌드 제품 출시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전문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기아차, 참여형 사회공헌 ‘레드클로버’ 2기 모집

내달 21일까지...교통약자 도움활동

기획단계부터 실행까지 대학생 주도

기아자동차가 다음 달 21일까지 대학생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인 ‘레드클로버’ 2기를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레드클로버’는 기아차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0명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2기 활동은 장애인·아동·임신부·노인·영유아동반자 등 5개의 지원 대상 그룹을 설정하고 대학생 8명이 한 팀을 이뤄 각각 하나의 그룹

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은 7월 1일부터 2주간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의 도움 아래 팀별로 설정한 교통약자 그룹의 이동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한다.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3주간 기획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게 된다.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 레드클로버 참가 대학생들은 대학로, 강남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확산을 주제로 한 소셜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일반 대중과 봉사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따뜻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대학생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기아차 역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똘똘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어설프었던 ‘오바마 지우기’

내일로 취임 100일

에너지 독립, TPP 탈퇴... 취임 후 ‘행정명령’만 30건
반이민 정책 법원에 묶이고 ‘트럼프케어’는 표절도 못해
앨리 잇던 증시도 소강상태
향후 100일 국정행보 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동시에 신임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도 고비를 맞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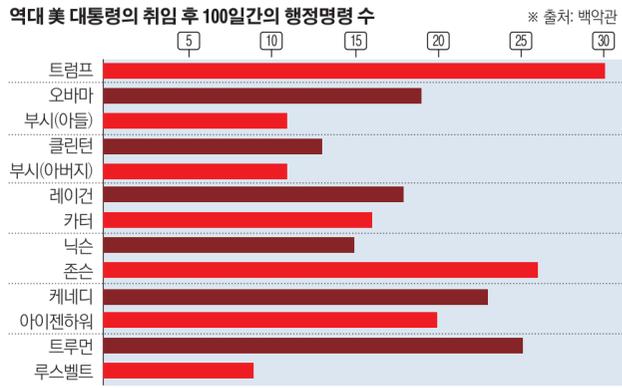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취임 후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만 30건에 달한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100일간 가장 많은 행정명령이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19건)과 조지 W. 부시 대통령(11건)보다 많은 것은 물론 전후 최다였던 린든 존슨 대통령(26건)보다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발동한 행정명령은 대부분 ‘오바마 지우기’에 쓰였다.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는 ‘오바마 레거시(유산)’ 청산에 열을 올렸다. 26일에는 환경문화 보호를 위해 개발을 규제한 보호구역 지정 규정을 뒤엎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날 28일에는 주요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이른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해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지를 지시했다. 취임 직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공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문제는 추진한 행정명령이나 정책이 좌초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미국 안팎의 술한 우려와 반발에도 취임 일주일 만에 낸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이 발이 묶였고 이후 내용을 소폭 수정해 다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가로막았다. 최근에도 미국 법원은 트럼프가 취임 사흘 만에 냈던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성소 도 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예비금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이



멜라니아 여사와 나란히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부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리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폐기하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나프타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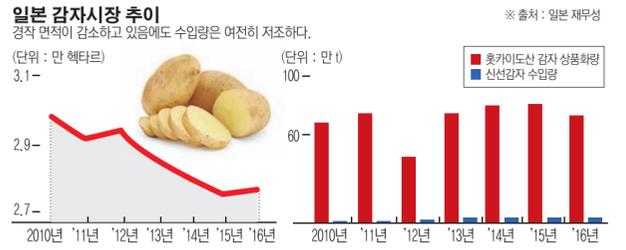
번이 세 번째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는 의회 표결에도 오르지 못하고 좌초되기도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건수를 내세워 실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생색 내기에 그칠 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동안 앨리를 이어가던 뉴욕증시도 소강상태다.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의 세계개혁안도 전날 공개됐지만,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더 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탈퇴를 검토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돌연 재협상 방침으로 선회하는 등 주요 교역 파트너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도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여전히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25일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ORC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4%. 미국에서 현대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취임 100일 전후 신임 대통령 지지율은 꼴찌였다. 물론 트럼프의 100일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향후

100일 그가 내세운 공약들이 정착되기 시작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100일이 트럼프의 4년 국정 행보에 갈림길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상당수의 연방정부 고위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부장관, 차관, 대사, 기관장 등 상원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중 공석인 자리는 530석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자리는 37석뿐이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인준을 위해 상원에 보낸 정무직 후보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내각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정 과제 추진 차질은 불가피하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쟁기도 트럼프의 향후 100일 과제로 손꼽힌다. 이미 미국 의회는 내년 11월 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의회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트럼프가 앞으로 100일간의 그간 신경 쓰지 않았던 지지율에 신경 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FT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탄핵론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日 감자 파동은 ‘또 다른 보호무역’

제조업체 감자칩 판매 잇단 중단
현지 소비 감소 78%가 미국산
농업단체 ‘훗카이도산 썬더’ 로비
까다로운 조건 내걸며 수입 규제

일본을 강타한 ‘포테이토 패닉(Potato Panic)’이 단지 태풍에 의한 흉작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해 훗카이도 지역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감자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시중에 감자칩이 써가 마를 정도는 아니다. 감자 파동의 더 큰 이유는 일본에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 까닭이다.

얼마 전 일본 최대 감자칩 생산업체인 가루베는 33개 감자칩 브랜드 출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감자칩 생산업체인 고이케야도 16개 감자칩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일본의 국민 간식인 감자칩 생산이 중단된 건 충격적이었다. 감자칩 애호가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감자칩은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 심지어 공석으로 남아있다. 부장관, 차관, 대사, 기관장 등 상원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중 공석인 자리는 530석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자리는 37석뿐이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인준을 위해 상원에 보낸 정무직 후보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내각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정 과제 추진 차질은 불가피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의 식·육·수산물 시장에서 단발성 기상이변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다. 태풍 피해 문제는 이미 9개월 전에 다 알고 있던 것이고, 감자는 국제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T는 일본 감자 쇼크의 근저에는 농업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일본에서 소비되는 감자와 감자 제품의 78%는 미국 생산자들이 공급한다. 일본 내에서 공급되는 건 겨우 20% 정도라는 이야기다. 이 정도는 수입량을 늘려서 해결하

면 그만. 감자 쇼크니 감자 파동이나 하는 건 과잉 반응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가루베나 고이케야 같은 감자칩 메이커들이 생산 중단이라는 조강수를 두면서까지 감자 수입량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FT에 따르면 일본의 식품산업은 지난 20년간 약 40%의 자급률을 지켜왔다. 감자의 경우 일본에서 소비되는 약 80%가 미국에서 들어온다. 수입된 미국산 신선감자에는 4.3%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관세를 치고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 감자칩 업체들이 수입량을 늘리지 못하는 건 업계의 로비 때문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일본 농업 로비단체의 입김과 일련의 비관세 장벽을 마련하는 데 주요 산지인 훗카이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한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신선감자 수입을 금지하고, 그 이유로 감자암종병이나 감자 씨드 선충 등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것이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배척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가 일본인의 장차에서 소화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던 만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입장은 2006년에 다소 완화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2-6월까지 일본의 향구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되는 조건으로만 신선감자의 수입을 허용한다. 특별한 식물방역검사와 농약안전기준도 충족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미국의 대일 감자 수출은 연간 약 1000만 달러로 제한돼왔다.

하지만 이런 규제만큼 유혹했던 것이 농업 로비단체가 보호주의적 신념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자국산 농산물은 그 어떤 외국 상품보다 품질이 좋으며, 예를 들면 최고의 감자칩은 훗카이도산 감자라면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테크 인사이트 닌텐도 ‘스위치’ 인기 비결

‘젤다’ 덕에... 과거의 영광 다시한번!

출시 한달 만에 274만대 판매
게임기보다 ‘젤다’가 많이 팔려

‘잘 만든’ 게임 하나가 닌텐도를 살렸다.

그동안 게임콘솔 시장에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MS)에 밀려 죽을 뻔했던 닌텐도는 지난달 초 새 게임콘솔인 ‘스위치(Switch)’를 출시했다. 닌텐도는 평소 TV와 연결해 게임을 즐기다가 휴대용 게임기로도 즐길 수 있는 스위치의 독특한 하드웨어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닌텐도 스위치의 폭발적 인기를 주도한 것은 이 게임기 자체보다는 전용 게임인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었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닌텐도는 스위치가 출시 첫 한 달간 274만 대 팔렸다고 27일 밝혔다. 닌텐도가 예상했던 2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스위치는 닌텐도 최고의 히트작인 게임콘솔 위(Wii)를 웃도는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닌텐도는 올해 스물네 개월 동안 274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닌텐도는 이번 회계연도에 영업이익이 650억 엔, 매출은 7500억 엔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가 달성되면 닌텐도는 7년 만에 가장 큰 이익을 내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자본주의 우드스탁’ 버크셔 주총, 환경운동가 성토장 되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힘쓰고 화석연료 기업 투자 철회”

워런 버핏(사진)이 이끄는 미국 투자 회사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의 올해 주주총회는 환경운동가들의 성토가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버크셔의 주총에서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행동주의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버크셔의 주총은 ‘자본주의 우드스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치처럼 여겨진다. 버핏 회장과 찰리 멩거 부회장이 직접 나와 투자 비법을 알려주고 주주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주총에 참여하는 인원은 3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FT는 추산했다. 그런데 올해 주총에서 주목할 사안은 실적이거나 투자 비법보다 환경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힘쓰고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네브래스카 평화재단의 로알 파크 회장은 버크셔가 석유 정제업체인 필립스 66 같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크셔에 다시 투자하게 된 이유는 버크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크셔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인 사회복지사 마르디아 세이지는 버크셔가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주총에서 그녀의 아들 딜란이 속한 자산관리그룹 블드윈브러더스의 대표가 메탄가스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이지는 “메탄가스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며 “버핏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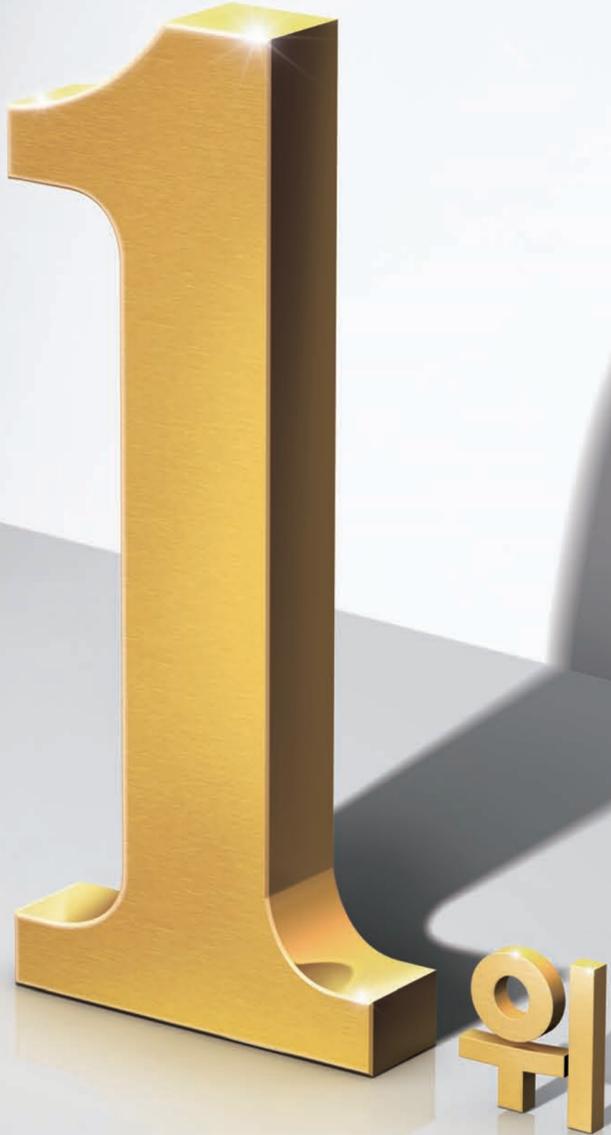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버크셔가 정치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이 붙었다. 이번 주총에 참여할 예정인 아이오와에 사는 톰 비어스와 메리 디피 부부는 “기업이 돈을 어떻게 쓰고 공공 정책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지지하지 않는지를 주주들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디피는 “버크셔는 다른 회사들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기대

를 걸었다. 그는 “어딘가에서는 시작해야 한다”며 “버핏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버크셔 이사회는 정치 후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반대하고 있다. 모든 자회사가 본사에 보고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며 현재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버크셔가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안건은 이사회에서 1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FT는 버크셔가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핏 회장과 멩거 부회장은 주총 중 질의응답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7
년 연속

- 2017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 2016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 2015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 2014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 2013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 2012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 2011 IPTV 부문 1위 / 인터넷 부문 1위



IPTV, 인터넷 국가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

고객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SK브로드밴드의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이
2017년 NCSI(국가고객만족도)에서 7년 연속 1위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더 큰 고객가치, 고객행복을 위해 변화하는 SK브로드밴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가입문의 ☎ 106 | www.skbbroadband.com

“공정거래” 합창... 누가 돼도 ‘재벌 손보기’

공약 훑아보기

재벌개혁

文, 비리기업인 사면 제한·엄벌
 洪,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安,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劉, 총수 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沈,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진보와 보수진영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5당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갑질 엄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재벌 손보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력이다.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재벌 개혁’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주

각 당 대선후보별 ‘재벌개혁’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삼성 등 4대재벌개혁,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상향조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총수 사면권 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준 자본 비상장·상장 구분 없이 20%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친족기업 인정 요건 강화, 적대적 M&A 대비 한국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안철수 국민의당	친족기업 및 해외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사 보유 재벌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독립성 강화
 유승민 바른정당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및 사면·복권 금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재벌 3세 경영세습 금지,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 명령제도 도입, 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다섯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수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공정위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을 엄벌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도 똑같이 구제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5당 후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대기업 ‘갑질’ 엄벌도 모두 공언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그동안 숭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던 기업범죄를 엄벌

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국민의 공분을 산 국민연금의 개혁에도 유 후보만 뺀 4명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대선후보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도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후보 간의 차이는 있다. 가장 보수 성향인 홍 후보까지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기업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안 후보와 심 후보만,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5·9 장미대선에서 역대 선거 때보다 강력한 재벌개혁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후보들의 실천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7일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경영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에서는 소극적”이라면서 “구체적인 구상이 없어 재벌개혁에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민정 기자 pur21@

문재인캠프 김덕룡 하나되는대한민국위원장

“文, 돌발사태 없는 한 승리 安, 훌륭하지만 내공 부족”

문재인, 보수세력 안보걱정 알고
 南北관계 개선 ‘평화의 길’ 걸어
 조기대선에 후보간 네거티브 난무
 집권시 최우선 국정과제 ‘통합’
 洪, 한나라당 시절 함께 국회활동
 대통령의 기본 품성·자질선 낙제



김덕룡 김명삼민주센터 이사장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9대 대선을 두고 “현재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돌발사태가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김 이사장은 27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갖고 “지지가 조금 높다고 낙관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덕룡 김명삼민주센터 이사장은 27일 19대 대선 판세를 두고 “현재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돌발사태가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김 이사장은 27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갖고 “지지가 조금 높다고 낙관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훌륭한 후보이나 내공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그는 “아직 국정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리더십 면 등에서 보완하고 채워야 할 점이 있다”며 “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보수들도 안 후보를 국정운영 능력의 소유자라고 판단하다가 특히 TV토론회를 보고 미답지 못하다고 돌아선 듯하다”고 전했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함께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두고는 혹평을 쏟아냈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기본인 품성과 자질에서 낙제”라며 “존재감을 높이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이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품성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주적’ 논란에 이은 ‘송민순 문건’ 논란 등 보수진영이 문 후보를 안보 이슈로 공격하는 데엔 거침없는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군부독재정권 때부터 보수세력은 위기 국면이나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안보를 빙자해 국민을 속이고 불안하게 했다”면서 “좋은 말로 ‘안보장사’라고 하지만 실은 ‘안보사기, ‘안보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젠 국민 수준이 달라져 그러한 상투적 수법으로 선거 이득을 볼 수 없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패를

갈라서도 안 된다.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수구보수들이 전쟁을 할 듯 나라를 몰고 가고 있지만, 문 후보는 득표상 불리하지 몰라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며 “보수세력의 안보관 걱정을 알고선 내가 진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나서 문 후보를 보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유도 비슷한 배경이다. 그는 “건장하고 합리적인, 양심적인 민주보수가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알고 싶었다”며 “평소 문 후보의 안보관 등에 대해 선입견이나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중도, 구여권 분들은 이제 그런 시각을 거둬도 좋다.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선대위에서 ‘하나되는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의 집권 시 최우선 국정과제로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진영 간, 지지자들 간 인신 공격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며 “대선 후에도 국민이 갈라져 싸울 공산이 커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내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김명영 기자 bomnal@

오늘 주제는 ‘경제’... 후보들 일정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서울 마포구 삼암동 MBC 경영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 문 후보는 외부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참모들과 토론의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인 만큼 소득 주도 성장 구상을 비롯해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구상 등을 놓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집권 후 통합정부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담은

‘통합정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로드맵을 통해 40석 소수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후에는 토론회 준비에 집중한다. 지난 3차 토론회에서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오전 한국교회연합회관을 방문한 뒤 한국교회원단체총연합회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방문하는 등 막판 보수결집에 나선다. 홍 후보는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성북도 구미를 방문해 집중 유세를 했다. 이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까지 방문한다. 이어 저녁에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 안정성 등 경비원 처우와 관련된 고충을 청취했다. 이후 토론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험을 십분 살려 ‘중부담·중복지’와 창업·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경제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오전 국회에서 마크 내피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철도노조 협약을 열고 철도 시설 외주용역·하도급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홍대 ‘건고 싶은 거리’에서 유세를 벌였다. 이후에는 토론회 준비에 집중한다. 심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놓고 다른 후보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hlee@



국내학대피해아동지원 캠페인

굿네이버스

끔찍했던 학대의 시간 지호에게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여전히 학대 상황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지호...
 그저 아픈 시간을 짐작해볼 뿐입니다.

지호와 같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 www.gni.kr

지호후원하기

굿네이버스는 국내학대피해아동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환점 돈 大權 레이스, 신발 끈 다시 매고...



“반갑습니다 문재수 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패러디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방송인 김민교 씨가 27일 경기 성남시 아람역 광장에서 현장 유세에 나선 문 후보를 직접 만나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김민교 씨는 현재 tvN 'SNL 코리아 시즌9' 방송 '미운 우리 프로듀스 101'이라는 정치 풍자 코너에서 문재인 패러디 '문재수'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김천 유세에 사드 반대 깃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7일 김천역에서 유세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이날 홍 후보의 유세에는 사드반대 시민들이 유세 중 집회를 벌였다. 연합뉴스



초등생이 그린 후보 포스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지역 거점 유세를 펼치던 중 한 초등생이 자신의 바람과 함께 안 후보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들고 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과 캠퍼스 學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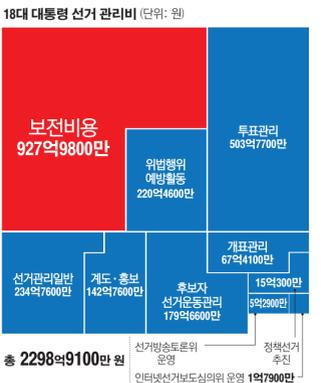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7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학생회관에서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성소수자 대학생 안아주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성북구 맥도날드 성신여대점 앞에서 유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소수자 대학생들을 안아주고 있다. 뉴시스

데이터로 보는 대선



대선 관리예산 1800억...18대 2299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소요될 예산도 미리 책정한다. 선관위는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선거관리비로 2422억9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288억9100만 원을 썼다. 예산 중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정당 혹은 후보에 돌려주는 보전비용이다. 18대 때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 각각 453억188만 원, 466억6503만 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67억 정당-후보가 시각경예산기금을 돕기 위해 제정한 정치형 선거공보-정치형 선거공약서 작성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79억632만 원을 돌려줬다. 투표관리에도 적은 돈이 든다. 선관위는 2012년에 503억7700만 원을 쓴바 있다. 이에 비해 개표관리에는 67억 4100만 원이 소요돼, 투표관리비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었다. 나머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감시하는 인건비성 지출이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인 선거 관리에 234억7600만 원, 위법활동 예방활동에 220억4600만 원, 후보 선거운동 관리에 179억6600만 원, 계도-홍보에 142억7600만 원을 각각 썼다. 이와 함께 스정확선거 추진 15억 3000만 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운영 1억7900만 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5억2800만 원 등을 썼다. 이번 19대 대선의 관리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1800억 700만 원이다. 지난 대선보다 줄어든 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탓이다. 선관위 관리자는 “예산도 최대 30%까지 줄 수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줄이는 등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 선거를 치르고 보전비용이 클 경우엔 예비비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bomla@

大權을 향해... 말말말

◇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다.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이후 최근 지지율 상승 기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며)

◇ “문을 열고 안을 보니 홍준표만 보이더라”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니 홍준표가 반겨 주더라 SNS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후보를 '문'에, 안철수 후보를 '안'에 비유하며)

◇ “공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5년 넘게 패러디를 하다 보니 호감이 생긴다.” (문재수 문재인 후보 풍자하는 방송인 김민교, 27일 문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문자)

◇ “내 나이가 75세다. 캠퍼스캠퍼치 보고 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27일 오후 전남 순천 유세 현장에서 최근 유세 과정에서의 발언을 의의한 한 듯 쪽지를 보며 한 말)

◇ “빨리 좀 알려 달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월요일에 그대로 하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7일 영남대에서 한 학생이 유 후보의 지지율을 올릴 방법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자)

◇ “그분들(성 소수자)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주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동성애' 발언에 대해 해명하며) 양병호 기자 dragonfly@

긴급 동의! 우리 목소리도 들어주소



노동당 당원들이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울산지역 보건의료단체가 27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치료 불가능한 방사능 사고, 탈핵만이 유일한 처방이다'라는 대통령선거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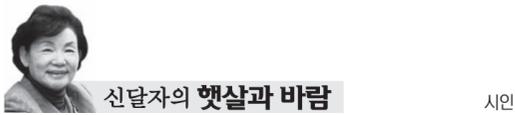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공약해 주세요! 2017년 4월 27일(목) 12:30, 명동 포스트타워 앞



27일 서울 노랑진역 앞에서 전국수험생유권자대대 주최로 열린 수험생 정책제안 발표식에서 참가자들이 시범시행, 각종 공채 시험 폐지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실천주권자회의 회원들이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중복몰이 색깔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 양한 정책요구가 적힌 프랜카드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시인

약속이라는 말과 아버지

여고 2학년 봄 나는 고향에서 부산의 학교로 전학을 했다. 부산고등학교 바로 앞 초량동이라는 곳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하숙집으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다. 친구는 있느냐? 하숙집 밥은 괜찮으냐? 다닐 만하냐? 등의 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엔 내가 아버지께 질문을 했다.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조금의 여유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하셨다. “나 말고, 이 아버지 말고 네 친구들이 말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면 더 바랄 게 없다.” 아버지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 ‘약속’이라는 말은 내 안으로 들어와 갈비뼈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에게 약속을 강요하시는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음의 정처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徘徊)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돌아 다녔다.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 날이 많았다. 어머니와의 싸움이 잦았고 그때마다 새벽까지 아버지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거짓말은 거의 상습적이었고 누구도 아버지의 방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의 공격에 준비된 답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중학생 때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는 성공한 남자였다. 내가 보기에 예도 안 가진 것이 없는 남자였다. 건강, 경제력, 가족, 친구... 게다가 그 시절 나름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며 여자도 몇 명 거느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참 많이도 놀라서 이불을 쓰

고 떨었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 “나는 혼자 울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혼자’라는 말이 많았고 ‘외롭다’라는 표현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왜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냐? 날개가 있다면 멀리멀리 날아가고 싶다”라는 구절은 어린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듯했다.

왜? 왜? 아버지는 돈이 많고 뭐도 많고 또 뭐도 많은 사람 아닌가. 돈에게는 돈이 가득하고 백여 평의 한옥을 짓고 뜰에는 장미가 가득하지 않은가.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보이지 않았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글쓰기’라고 생각했다. 문학을 꿈꾸던 아버지는 막중한 현실을 등에 업고 살아야 했지만 현실을 밀치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의 마음

을 이해하기엔 시간이 걸렸다. 결국 아버지의 사업은 바닥으로 내려앉았는데 그 이유를 나는 정서적 허기증(情緒的 虛飢症)이라고 생각한다. 배는 부른데 감정적 허기에 시달렸던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딸이 이루어, 내가 어느 날 시인이 되었을 때 너무 지나친 감격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사극(史劇)에는 딸이 왕비가 되면 애비가 큰절을 하던데 내가 네 앞에 큰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 말이 결국 난 울고 말았다. 꿀떡 시인을 왕비에 겨누다니,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1997년 아버지의 정례식 날, 아버지 시집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1999년 ‘아버지의 빛’이라는 시집을 내고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시인이라고 속삭였다.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시인의 이름은 언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시인’이라고 불러 드린다.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企業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달러에 불과하다.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에 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자금 지원이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피해 금액이 선박 투입액가 32조2000억 원, 금융기관 채권손실 21조2000억 원 등 59조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이 추락한다. 여기에 협력업체들의 부도와 지역 경제의 타격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 무조건 자금 지원을 해야 하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미래의 손익계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자금투입에 비해 손실이 크면 당연히 자금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에 묶여 미래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오히려 부도의 화를 키우는 일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은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0월 투입한 4조2000억 원의 자금

을 소진했다. 여기에 다시 2조9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태는 최악이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당기순손실은 2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부채가 자본금의 2400%나 된다. 1년에 필요한 운전자금만 8000억 원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어떤 지원책을 내놓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번 채무조정 기의 가장 논란은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에 찬성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모은 노후 생활자금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채무조정 후 회생에 실패할 경우 40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연금의 투자금액이 부실화한다.

국민연금은 최순실 사태에 연루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 국민연금은 35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바 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에 찬성한 것이 같은 형태의 비리로 귀결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바꿔야 한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을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형태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부실채권을 확대 재생산하여 기업과 경제를 함께 쓰러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회사들의 구조조정은 조선업 경기가 내년부터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재는 다르다. 일본은 조선업계 1-3위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고 중국은 3000개가 넘는 조선사를 300개로 줄였다. 우리나라도 업계의 현황과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과 국내 다른 조선사들의 과감한 인수·합병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여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선업 구조조정을 향후 산업구조조정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달엔 소비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를 계기로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경제가 경기의 불씨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 톨

횡감이 아닙니다



워터에이징 (Water Aging, 냉수침지숙성)

“어머, 고기마다 별짓을 다 하네!” 서울 영등포의 한 백화점. 오가는 시민들이 커다란 수조를 보며 한마디씩 던진다. 백화점 정육 매장에 새로 선보인 ‘냉수침지숙성(워터에이징) 고기’다. 백화점 살판에 따르면 워터에이징은 3도 이하의 차가운 물속에 고기를 넣고 일정한 온도로 숙성시키는 방법이다. 까다로운 손님들의 시선을 끌어 지갑까지 열게 하기 위해 오늘날 고기는 열심히 공기방울을 맞으며 ‘관리’받는 중이다. 고이영 기자 photoeran@

온라인 와글와글

中, 한국 식품·화장품 또 수입 불허 “언제까지 이럴지 거죠?”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중국이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또다시 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 발표한 ‘2017년 3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리스트’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466개 품목 중 83개가 한국산이다. 해당 한국산 식품·화장품만 33개로,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식품·화장품 물량의 17.8%에 달했다. 특히 이번 질검총국이 수입을 불허한 한국산 제품에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제품인 사탕 600kg도 포함됐다. 식품 첨가제가 초과했다는 이유였다. 네티즌은 “이참에 우리도 중국에서 눈을 돌리자”, “땀 땀어리만 컸지 치졸한 소인배 같으니라고!”, “정말 답답하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을 안 하나, 못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테니스 여제’로 이름을 날렸던 마리아 샤라포바가 돌아왔습니다. 샤라포바는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여자 프로테니스 투어 포르세 그랑프리에 참가하며 복귀했습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실력도 녹슬지 않았죠. 작년 1월 도핑 양성 반응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지만, 그녀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스포츠 스타로서만이 아니라 패션스타, 사탕 회사 ‘슈가포바’의 경영인으로 화려하고 바쁜 삶을 이어가는 샤라포바의 모습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QEH2cS>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아이들의 꿈이 잘 자랄 수 있게
현대오피스가 도와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무기기는 현대오피스입니다

현대오피스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정에서 초보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오피스의 코팅기로 내 아이의 목소리 나는 교육을 시작해보세요! 전제품 안전인증마크 획득으로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플 & 스마트한 학생용 문서세탁기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그만!
교지서·명수증을 깔끔하게 세척!

임마표 교육제직의 필수품! 코팅기
빛에 바래거나 물에 젖을 일 없게
중요문서·아이들 교육구까지

나만의 책 만들기! 학습용과 나만의 사진기
제본서·연습장·교재제작 등
필요한 내용만 복사!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제품구매처 현대오피스 쇼핑몰 www.hd2.co.kr |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공무원연금제휴쇼핑몰, 신세계몰, 1300k, N마켓, nsmal, d&shop, 현대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아이몰, 네이버 지식쇼핑, 네이버 체크아웃, 네이버 샵N, B2B ZONE, 에누리닷컴, 어비웃, 다나와

이슈 & 인물

인구 줄어든다고 資産시장 안 무너지... 진짜 문제는 '취업절벽'

.....
‘인구절벽론’ 정말 위기일까
.....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인구 감소’ 경험한 선진국 중 장기불황 겪는 나라는 일본뿐 미국, 일본 사례 열심히 공부 ‘서브프라임’ 사태 극복 활용

심각한 실업난... 비판론 확산 일자리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 소득 안정돼야 아이도 낳을 것 그런 환경 만드는 게 정부 역할

누적 방문객 932만 ‘경제 블로그’

홍춘욱 팀장은 국내 증권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첫발을 댄 뒤 증권사로 자리를 옮겨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굿모닝증권 기업분석부를 거쳤다.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제·금융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는 홍 팀장의 블로그가 누적 방문객 수가 932만에 달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의 불안감을 키웠던 일련의 주장이 있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2017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인구절벽론’이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경험했던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은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의 일본화’를 기정사실(既定事實)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국내 증권업계 대표적 경제분석 전문가로 꼽히는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20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로서 선진국 사례, 일본의 장기불황 과정, 한국의 자산 시장과 인구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최근 펴낸 책 ‘인구와 투자의 미래’를 통해 인구절벽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홍 팀장을 만났다. 그는 인구 감소를 경험한 선진국 중 장기 불황을 겪은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에도 자산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 일본의 전철을 피한다면, 우리나라도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성장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국내 경제에 대한 비판론이 팽배한 것은 결국 청년실업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日 장기불황, 정부 정책실패가 원인

△인구절벽론을 반박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구 변화 같은 어떤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세상을 다 설명하려 드는 시각이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든다

고 해서 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할 테니 경제가 망할 것이다’라고 믿게 되면 정말로 그 나라의 경제가 망간다. 지난 몇 년간 소위 배웠다는 분들이 무책임한 ‘공포팔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들었다.”

△다른 나라의 자산 시장은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운용역으로 근무하던 시절,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두고 선진국과 신흥국 중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낫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 비교해 보니 달러로 환산한 자산 시장 수익률에서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뛰어나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들어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영국 중 자산 시장이 안 좋은 곳이 없었다. 부동산이 많이 오른 나라는 주식이 비교적 못 올랐고, 주식이 많이 오르면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대체로 반반씩 투자했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

△왜 유독 일본만 자산 시장 붕괴와 장기 불황을 겪은 것인가

“우선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또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 주식 시장은 1989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1991년부터 무너졌는데 일본의 실질정책 금리는 1994년까지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가격 폭락을 촉진했다. ‘언더워터(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태)’에 있는 가구가 늘었고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저축을 늘렸다. 모두들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자 경제 전체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국가에서 내수가 구조적으로 망가진 것이다. 여기에 은행마저 대출 회수에 나서자 전방위적 위기로 번졌다. 원인은 인구 감소가 아니었다.”

△장기불황을 피해간 다른 나라는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었다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일본 사례를 열심히 공부했다. 2000년대 초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90년대 일본의 교훈이라는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1g이라도 있을 때는 시장 참가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출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절대 선불리 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 교훈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극복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펴낸 ‘인구와 투자의 미래’를 통해 인구 절벽론을 정면 반박했다. 인구 감소를 경험한 선진국 중 장기 불황을 겪은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것. 일본의 전철을 피한다면 우리나라도 자산 시장의 성장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이런 기자 photoeran@

하는 데 활용했다. 거꾸로 최근 일본 경제를 일으킨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대응을 보며 일본이 다시 교훈을 얻은 것이다.”

韓 부동산·주식 시장 저평가 돼있어

△한국의 자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일본처럼 거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은 과거 일본과 달리 거품이 심하지 않다. 한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크게 저평가돼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실제 소득증가율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득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식 시장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데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에 불과하다.

가장 높다고 하지만 실제 자산가지 정도 밖에 평가를 못 받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가운데 어느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일까

“독립 변수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난다면 내수재인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경제가 회복된다면 일자리가 늘고, 혼인이 많아지고, 출산율이 반등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이 나쁠 이유가 없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투자한다면 자신들이 잘 아는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반면, 경제 상황이 계속 암울하다면 주식 시장이 유리하다. 내수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수익률이 오르는 추세여서 시장금리와 배당의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주식

시장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론이 팽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구조 측면에서 자산 시장보다 고통스러운 문제는 저출산과 청년들의 취업난에 있다. 경제 주체들이 도저히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산율과 취업난은 사실 같은 문제이다. 적정이 있고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아이를 갖는 것 아니겠나. 비판론의 본질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실업 사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청년의 취업난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5년 뒤면 한국도 일본처럼 대졸자 완전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 와 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03~2004년이었는데, 12~13년 지나서야 노동력 공급과잉이 해소됐다. 사실 일본의 공급과잉 해소는 너무나 슬픈 방향으로 진행됐다. 장기실업자들이 영영 노동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아예 한 세대 전체를 배제해 버린 것이다.”

경제주체 생각 바뀌어야 미래 바뀐다

△경제 주체들의 비판론을 견어내려면 어떤 해결책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업과 가계의 비판론을 일거에 부술 만한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된다. 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일본이 그랬다. 20년간 하락하던 경제가 ‘아베노믹스’ 한 방에 저렇게 살아났다. 많은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하지 않나. 경제 주체들의 생각이 바뀌면 미래도 바뀐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당부 한마디한다면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에 부족함이 많다. 다만 희망을 걸어 보자.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바닥을 쳤다. 올해는 도저히 답이 없겠지만, 적어도 내년은 몇 년간의 가뭄에 대비와도 같은 해가 될 것이라ذا 생각한다. 경기 순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좋은 취업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경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본실실 (02)799-6701	윤리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8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 권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화제의 신간

초기경전, 대승경전, 논서까지 불교 주요 경전의 핵심 사상 총망라

불교 경전과 마음공부

불교 경전 산책

경전은 인류가 보유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언어요, 우리를 직접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질적 가르침이다

법상 지음 | 400쪽 | 15,000원

260자에 담긴 삶의 지혜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260자에 담긴 삶의 지혜

반야심경을 만나면 진리에 대한 안목이 활짝 열리고, 삶이 행복과 자유로움, 희망과 경외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법상 지음 | 352쪽 | 14,500원

“벤처 성실 실패자에게는 再도전 기회 줘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차기정부에 정책 제안 M&A 활성화·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핵심과제 선정 시중은행서도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 면제도 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방법은 기술창업과 벤처육성이 유일한 만큼 벤처 활성화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대선 후보들에게 벤처 활성화를 실현시켜달라며 정책을 제안했다. 벤처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과거 규제에 묶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안 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벤처업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분야 대선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기술과 경영, 창업, 글로벌, 판로 등 벤처 관련 학계 전문가와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벤처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선공약집을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비롯해 30개 항목

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협회가 발표한 벤처생태계 5대 핵심과제는 △M&A로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자 전환 △성실 실패자에게는 원칙적 재도전 기회 제공 △창업규제의 근본적 해결책,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상생의 Key, 기술어린 운동장 바로잡기다. 세부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창업, 성장, 회수, 재기 분야로 나눠 각 세부 현황과 문제점과 해법을 담았다.

특히 안 협회장은 대선공약 과제 발표를 통해 연대보증, 엔젤투자, 크라우드 펀딩, 스톡옵션 등을 비롯한 각종 거미줄 규제가 철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제와 자금이 원활하게 수월해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기업군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약과제를 각 후보에게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서는 벤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제시하고 있는 벤처 활성화 공약들이 차기 정부에서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가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해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 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대보

증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7년까지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시중은행까지 늘려 달라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벤처기업의 거래 비중은 시중은행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7년까지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국내 일간신문 최초의 전문 여자기자

최은희(崔恩喜·1904~1984)는 1904년 황해도 연백 배천(白川)의 개화교육자 집안의 5남 5녀 중 5녀로 태어났다. 해주 의정여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3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가 구류 처분을 받았다. 24일 만에 풀려난 뒤 다시 황해도 연백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해주지방법원에서 6개월 징역, 2개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을 거의 하지 않았다. 남편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사회 활동을 피한 덕분에 친일 활동도 비켜갈 수 있었다.

안주 유신여학교 교사를 거쳐 일본 도쿄로 유학, 1922년 3월에 닛신(日進)영어학교를 졸업하였다. 황신덕, 박순천, 이현경 등과 함께 니혼(日本)여자대학에서 수학하였는데, 사회사업학부 3학년 때 춘원 이광수의 추천으로 조선일보에 입사하였다. 8년 재직하는 동안 정치부, 사회부, 학예부를 두루 거치며 전문기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1942년 남편이 병사하자, 1남 2녀의 어머니로 가장이 되어 삶바느질과 우표 가게 등으로 자녀 교육에 헌신했다.

부인연합단을 조직, 인솔하는 한편 가정관을 신설해 ‘첫 길에 앞장선 이들을 연재하는 등 여성의 사회화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여성 기자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일본 와세다(무稻田)대학교 법과 2년을 수료하고, 1927년 유영준, 황신덕과 함께 근우회 발기인 및 창립준비위원으로 동회를 조직하였으며, 숙명여고보의 동맹휴학을 지원하여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전문적 여성단체 방월구락부를 재출범시키는 등 사회 활동에도 힘썼으나 근우회 해체 이후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1945년 광복 후 최은희는 사회 활동을 재개하였다. ‘여학교 교장은 여자’로 운동부터 1948년에는 자유당 산하 여성단체를 대한부인회로 통합, 서울시 부회장을 맡았다. 1952년 12월에는 대한여자국민당에 들어가 임영신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기자 경력을 살려 각종 성명서나 문서 작성을 전담하였다. 그 밖에도 국방부녀회 창설위원, 여성단체 총협의회 문화부장 등을 역임하며, 5월 ‘한국의 어머니날’ 제안도 하였다. 1961년 5·16 후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 사회단체의 여성 대표로 참여했다.

1930년 7월 니혼대학 법과 출신의 이석영(李錫泳)과 결혼한 뒤 1932년 병이 들어 신문사도 그만두고 활동

특기할 일은 그의 저술 활동이다. ‘씨 뿌리는 여인’, ‘조국을 찾기까지:1905년~1945년 한국여성활동 비화’ 등을 출간하였으며, ‘여성진전 70년-초대 여기자의 회고’ 등 그의 수많은 저서들이 근대 여성사 연구의 견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1984년 별세 후 조선일보사는 그의 유지를 따라 ‘최은희 여기자상’을 제정, 후배 여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올해의 ‘기업경영대상’

조환익(사진) 한국전력 사장이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기업경영학회로부터 2017년 기업경영대상을 받았다.



한국기업경영학회는 조환익의 한전 사장이 2012년부터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을 이끌면서, 한전의 업(業)의 변화를 통해 디지털 한전(Digital KEPCO)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한 점, 안정적 전력공급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기업경영대상은 한국기업경영학회가 2001년부터 매년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산업·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관세폭탄’ 위기 몰린 권오준 포스코 회장

“美통상문제 해결 위해 WTO 제소도 검토”

산업부·철강업계 CEO 간담회 지난달 후관 제품 11.7% 부과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장관과 철강업계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자, WTO 제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지난 달 말 포스코 후관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함께 11.70%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후관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건조에 사용된다.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연 30만 톤) 중 약 90%가 포스코 물량이다.

“한국사회, 아직도 여성에 제약 많다”

김성주 회장 ABAC 개막 총회

김성주(사진) 성주그룹 회장이 ‘코리아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PEC기업인사 문화(ABAC) 한국위원회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27일 ABAC 개막 총회에서 한국 위원을 대표해 ABAC 21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다른 업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초 현대중공업 변압기에는 지난해 예비판정보다 20배 더 높은 61%의 관세가 매겨졌다. 권 회장은 상계관세 비율이 타당한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층 높아진 미국 수출 문턱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짤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수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긴 했으나 장기 거래 중인 고객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월드 프리미엄(WP)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천 기자 sunhyun@

이날 김 회장은 “외신에서 한국에 대한 안보불안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데, 이번 회의에 흔들림 없이 참여해 준 모든 위원들께 먼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여성 인권신장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여성을 위해 APEC이 함께노



력하자”고 촉구했다.

또 김 회장이 이 사장으로 있는 성주재단의 후원으로 ‘ABAC 위민스 런치(Women's Luncheon)’도 개최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에게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공식 자문기구로, 21개 APEC 국가의 150여 명의 기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베조스 재산 800억달러...글로벌 톱 눈앞

아마존닷컴 ‘어닝 서프라이즈’ 1위 빌 게이츠와 50억달러차

제프 베조스(사진)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아마존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부자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베조스는 이날 아마존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면서 재산이 처음으로 800억 달러(약 90조5600억 원)를 넘어섰다. 그는 지난 2012년 3월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처음 등장 이후 재산이 652억 달러나 불었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정규거래에서 전일 대비 1% 상승한 918.38로 마감했다.

반면 지난 2013년 5월 17일 이후 줄곧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설립자는 이날 MS의 실적 부진에 따른 추가 하락으로 재산이 전날보다 2억 달러 줄어든 8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베조스와 빌 게이츠의 재산 차이는 50억 달러로 좁혀졌다. 베조스의 세계 최고 부호 등극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아마존은 지난 20년간 유례없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1분기 매출이 357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美트럼프 딸 이방카, 진심 혹은 가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로 활발하게 대외 활동에 나서는 이방카가 새엄마이자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달래기에 나섰다.

이방카는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멜라니아의 생일을 축하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우리 퍼스트레이디(그리고 나의 놀라운 새 어머니) 멜라니아 트럼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친절함과 우아함의 훌륭한 모범”이라며 온갖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방카가 새엄마와의 냉랭한 관계를 포장하기 위한 트윗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연예 전문지 배니티피어는 지난 23일 이방카와 멜라니아의 싸늘한 관계를 목격했다며 권력욕이



강한 이방카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은 “이방카와 멜라니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인사

-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강지원 공소장 김경희 김나연 김용선 김정화 김주현 김지혜 김진호 김필수 박보영 박상희 박지향 신명은 심동선 안세영 안창인 오승식 왕은진 윤순 이가는 이동욱 이명희 이상범 이아람 이영주 이영훈 이재연 장해수 정다미 정성욱 정재훈 조하림 주은혜 최종운 허경녕 홍영기 황충현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재정과정 김완국 △투자유치지원과장 남일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박진열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고희철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안병삼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조세기 △항공교통조정과장 김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한병희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인사교류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최장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정책협력실장 김태곤 (팀장) △비서팀 정승현 △해상환경팀 이승한 △정보화팀 김대성 △방재지원팀 이상열 △해양보호구역팀 김강식 △교육개발팀 한영식 △교육운영팀 김종덕 (지사장) △인천 배정범 △울산 이방카 △군산 최성환 △포항 김성란
-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 △조정및시스템연구실장 오정석 △광응용기계연구실장 겸임 송준엽 △인쇄전자연구실장 조정대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장 박찬훈 △에너지기계연구본부 △에너지변환기계연구실장 박준영 △열시스템연구실장 이공훈 △에너지플랜트안전연구실장 이공훈 △에너지플랜트안전연구실장

- 최병일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장 고득용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나노공정연구실장 유영은 △나노응용역학연구실장 김재현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 임현호 △환경시스템연구본부 △환경기계연구실장 송동근 △청정연료발전연구실장 이상민 △그린동력연구실장 최영 △플라즈마연구실장 겸임 송영훈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실장 김봉기 △스마트기계연구실장 이근호 △자기부상연구실장 한형석
- ◆KT금융그룹 △P2P증권 △대표이사 황승욱
- ◆다우이큘그룹 △키움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윤승용 △운용팀장 최원경
- ◆법무법인 덕수 △상임고문 유상규
- ◆글로벌이코노믹 △편입국장 직무대행 겸 산업부장 윤정남 △뉴미디어부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김대훈 △생활경제부장 조규봉 △금융·증권부장 김진환 △IT전문기자 이재구

부음

- ▲박종희(울산대 교수)·성희(머니투데이 상무)·철희(경인교대 교수)씨 모친상 = 27일, 부산 대동병원, 발인 29일, 051-550-9991
- ▲최희재(서울보증보험 마케팅관리부 팀장)씨 모친상, 윤병준(서울 강경한의원 원장)·강대선(한국벤처투자 본부장)·조경욱(경감치과의원 원장)씨 정모상 = 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02-3410-6915
- ▲김태철씨 모친상, 송재구(충북 자치연수원장)씨 정모상 = 27일, 청주병원, 발인 29일, 043-224-2898



어린이날 선물, 너로 정했다

레고 등 감각발달완구 매출 급증

#아홉 살 아들을 키우는 조미래 씨는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고민 끝에 '레고'를 섰다. 조 씨는 "매년 어린이날이면 아이를 위한 선물 구매에 고민이 많았는데, 레고는 아이의 지능과 감성 발달에 좋을 것 같아 구매하게 됐다"며 "특히 온라인몰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구입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타닌매카드, 포켓 등 로봇완구로 대표되던 어린이날 선물로 올해는 아이의 창의력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립·공작완구로 바뀌고 있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 챙겨주려는 'VIB(Very Important Baby)'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단순 놀이보다는 IQ와 EQ까지 챙길 수 있는 놀이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 티몬에 따르면 레고, 에벨라인, 피셔, 뽀로로 상품 등 감각발달완구 상품군 매출이 13일부터 26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나 증가했다.

오픈마켓 옥션이 어린이날을 앞둔 13일부터 19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어린이 선물 관련 상품 판매를 분석한 결과, 클레이나 블럭 등 아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만드는 완구 제품 판매가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클레이판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288%) 가까이 급증했다. 클레이판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완구 제품으로, 아이가 직접 원하는 크기로 자르고, 붙여가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교육 완구다.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별도의 접착제 없이 물로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어 더욱 인기다. 클레이판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클레이(66%) 판매도 늘었다. 손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지능 개발과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어린이날 선물 스테디셀러인 블럭 판매도 늘었다. 아이는 물론 킷덱족의 관심을 받는 레고는 동기간 28% 늘었다. 우주선, 성, 건물 등 다양한 시리즈가 마련돼 취향, 연령, 성별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레고 외에도 아이의 IQ와 EQ 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스타일의 블럭들이 두루 관심을 받고 있다. 간단한 쌓기 놀이부터 숫자, 도형 맞추기 등 교육용으로 인기인 좋은 원목블럭은 39% 늘었으며, 옥스포드 블럭과 자석블럭은 모두 두 자리 수(15%) 증가했다. 이외에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퍼즐도 73%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 퍼즐부터, 입체퍼즐, 슬라임퍼즐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인기에도 힘입어 옥션은 오는 5월 2일까지 진행되는 'KIDS TOY FESTIVAL' 프로모션을 통해 블럭 등 어린이날 대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17일과 18일 매일 한 가지씩 선보이는 특가 상품으로 마련한 플레이도 우와 레고는 판매 개시 30분 만에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우석 옥션 유아동팀장은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재미는 물론 아이의 정서와 교육적 측면까지 꼼꼼히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며 블럭, 공작완구 등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날 대표 선물로 인식되던 로봇완구의 인기가 수그러들며 올해는 블럭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들이 어린이날 선물로 두루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석촌호수에 설치된 '스위트 스완'. 롯데월드타워가 송파구와 함께하는 네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다음 달 8일까지 호수를 장식한다.

떠난 자리, 찾아온 백조가족... 인증샷 필수!

주말에 어디 갈래?

서울근교 당일치기

롯데월드타워 '스위트 스완' 프로젝트 내달 8일까지 서울 잠실 석촌호수서 5·6일 콘서트홀에선 어린이날 음악회 에버랜드, 체험형 '키즈빌리지' 오픈 안성팜랜드, 10만여명 '호밀밭 축제'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아직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면 놀이동산이나 서울 근교로 당일치기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5월 첫째 주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겹겹이 겹쳐져 연휴로 이어지지만, 주말이나 회사 사정상 여행을 못 가는 가정들도 많다. 그렇다고 이번 연휴를 집에서 보내기가 아쉽다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는 롯데월드타워나 에버랜드, 안성팜랜드 등에서 당일치기 나들이를 즐길 만하다.

우선, 석촌호수 동호에서는 5월 8일까지 롯데월드타워와 송파구와 함께 진행되는 4번째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스위트 스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스위트 스완' 프로젝트는 3년 전 '러버덕' 프로젝트를 진행한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공공미술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이 다시 한번 석촌호수에 높이 16m에 이르는 엄마, 아빠 백조와

아기 백조 5마리로 구성된 백조 가족을 띤 것. 작가는 "사랑이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백조 가족으로 형상화했으며, 아기 백조가 성장을 통해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과 성숙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2014년 러버덕 프로젝트, 2016년 슈퍼문 프로젝트 등 초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은 한 달간 5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들을 송파구와 석촌호수 일대로 불러모아 인근 레스토랑, 카페 등 매출을 크게 늘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스위트 스완' 프로젝트 역시 주변 상권의 매출을 20~30%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5월 황금연휴를 맞아 롯데월드타워 단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롯데월드몰 8~10층에 있는 국내 최초 빈야드 스타일 클래식 전문 휴먼 콘서트홀에서는 5월 5일과 6일 오후 2시 양일간 '롯데콘서트홀 어린이날 음악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최영선이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디토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고,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를 리코디스트 염은초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해 줄 예정이다. 과자 파키지도 증명한다.

또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있는 국내 도심 최대 규모의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에서는 지하 2층 정어리 존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골격미색전'을 진행한다. 골격미색전은 특수 염색약을 이용해 생물체를 해체하지 않고 뼈 등 특정 부위만을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해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해양생물에 대



안성팜랜드의 사진명소인 유채꽃밭.



에버랜드 헬로 티닝 어드벤처.

해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랜드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며 창의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체험시설을 새롭게 오픈하고, 나비 날리기, 마술쇼, 퍼레이드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어린이들의 오감 발달을 위한 체험형 놀이시설 '키즈빌리지(Kids Village)'가 29일 새롭게 연다.

매직랜드 지역 에듀센터 1층에 약 500㎡(150

평) 규모로 조성된 키즈빌리지는 에버랜드가 어린이 교육전문기업 웅진씽크빅과 함께 만든 에듀테인먼트 놀이시설이다.

어린이들은 탐험, 감성, 생각, 지혜 등 네 가지 웅진씽크빅 테마로 구성된 체험존에서 웅진북클럽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도서, 교구 등을 활용한 재미있는 놀이 체험을 통해 신체, 정서,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에버랜드 내 포시즌스 가든에서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사육사와 함께 큰줄이나, 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등 다양한 나비를 관찰하고, 직접 날려보는 '나비날리기' 체험도 매일 3회씩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왕자, 공주, 아기동물 등으로 변신한 채 카니발 판타지 퍼레이드, '문라이트 퍼레이드' 등 실제 주·야간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퍼레이드는 에버랜드 홈페이지 사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체험비가 없다.

안성팜랜드는 호밀밭과 초원, 유채꽃을 통해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안성 호밀밭 축제'에서는 10만 평의 푸르른 호밀밭을 바라보며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사해 일상생활의 고단함을 해소해 준다.

6월 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호밀밭 산책길, 유채꽃밭(나비동산), 소타조방목장, 포토존(호밀밭의 파수꾼, 마루나무 숲터)이 설치되고, 호밀밭 풍경 사진전 등이 열린다.

또, 가족놀이 한마당, 스마 퍼레이드, 돼랑이가 달려요, 호밀가족 오감퀴즈, 변양과 함께 달려요, 양털 쥐기, 플라잉디스크 체험과 호밀 타작체험, 호밀 짚공예 체험 등이 마련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봄나들이, 마무리가 더 중요한지 아시죠?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탈탈~

CJ라이온 '이노비트...' 세균 99.9% 제거 아로마티카 '로즈마리...오일'로 두피 청소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젤...' 피부장벽 재생

봄꽃이 기지개를 켜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 나들이를 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외출 시 무방비로 노출된 옷과 피부에는 질산, 황산 등의 유해 중금속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가 들러붙기 쉽다. 미세먼지가 붙은 상태에서 실내용 들어오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곳에 유입되는데, 실내에 흡착된 먼지와 각종 유해균은 다시 피부로 옮겨가 2차 감염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J라이온 비트 브랜드 매니저 양태원 팀장은 "화창한 날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유해균까지도 제거해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항균 거품으로 섬유 속 유해균까지 디톡스 세탁 = 우리가 입는 옷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CJ라이온 '이노비트 항균버블'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스킨 클렌징 오일'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젤 무쌍' 리더스코스메틱 '인술 루션...마스크팩'

일차적으로 접촉되고 각종 유해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섬유 속 유해물질은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이에 섬유 속 유해균까지 제대로 제거하고 디톡스하는 철저한 의류 세탁이 중요하다.

CJ라이온의 '이노비트 항균버블'은 섬유 속 황사나 미세먼지, 유해균에 세제가 반응해 항균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 항균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세탁 코스로 생활 속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준다.

◇ 두피에 남은 미세먼지까지 제거 = 두피에 붙은 황산염, 금속화합물,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두피의 영양이나 수분 공급을 막아 염증이

물론이고 탈모를 유발하므로 두피 속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스킨 클렌징 오일은 삼중 전 단계에 사용하는 두피 전용 천연 클렌징 오일이다. 얼굴의 화장을 오일로 지우듯 두피의 각질이나 노폐물을 오일로 지우고 마사지하면 된다.

◇ 얼굴에 붙은 미세먼지 없애자 = 메이크업으로 민감해진 얼굴에 미세먼지가 붙으면 잘 제거되지 않을뿐더러 피부를 자극해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해 만성 피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더마가 출시한 저자극 포밍 젤 클렌저 '센시비오 젤 무쌍'은 피부에 최적화된 약산성 pH 레벨로, 코코글루코사이드, 글리세릴올레이트 성분을 함유해 손상된 피부 장벽을 되돌리고 피부의 수지질막을 보호해준다.

◇ 미세먼지를 자식처럼 떼자 = 세안으로 미세먼지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미세먼지 제거 전용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더스트 마그넷 마스크팩'은 피부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자식처럼 흡착해 주는 미세먼지 토털케어 마스크팩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칼군무’ 아니라 놀랐나요 우린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인터뷰 그룹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앨범으로 오늘 컴백
재결합 도운 무도·YG엔터에 감사
아이돌서 전시회 여는 아티스트로
우리만의 색깔로 80주년까지 GO!**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다. 지난해 MBC ‘무한도전’에서 다섯 명의젝스키스 멤버들이 무대 위에 올라 ‘폼생폼사’를 다시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들의 재결합이 새 음반 발매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팬들을 위한 단발성 이벤트로 치부했다. 하지만젝스키스의 재결합은 소속사 이적으로, 콘서트로, 전시회로, 그리고 새 음반 발표로 이어졌다. 이별의 시간은 길었지만젝스키스로 살아갈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 것이다.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기분 좋은 떨림과 긴장을 안고,젝스키스가 다시 무대 위로 오른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소감이 궁금하다
“아이돌 그룹으로서 20주년을 맞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팬들이 곁에서 우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결합을 도와준 ‘무한도전’과 우리를 받아준 YG엔터테인먼트에도 감사드린다.” (은지원)

“어린 시절 멋모르고 데뷔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설레고 기대된다. 개인적으로는 20년이 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젝스키스를 데뷔 80주년까지 하고 싶다.” (김재덕)

“팬들에게 선물 같은 한 해, 보답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이 쏘박 같

다. 꿈은 현실이 된다는 걸젝스키스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젝스키스는 여전히 ‘아이 엔지(ing)’다.” (강성훈)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
“이제는 나의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데뷔 당시에는 무수히 나오는 아이돌 그룹 중 하나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음반을 만들고 전시회를 열면서 아티스트에 가까운 위치에 온 것 같다.” (이재진)

“팬들의 연령층이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교복을 입고 온 학생 팬들이 많았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오히려서 반말을 하면서는 관객들에게 반말을 해야 할지 존댓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간 낯설었다. 하지만 공연을 하다 보니 금세 예전처럼 돌아가게 됐다.” (은지원)

△멤버들 모두 30대 후반 ~ 4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 안무를 소화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나
“우리는 칼군무를 하지 않는다. 후배 아이돌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랄까, 무대를 보면 ‘저 사람 안무 틀린 것 같은데?’ 싶은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무가 맞는 안무다. 하하하. 다들 자기 취향대로 춤을 춘다.” (은지원)

“그래서젝스키스의 무대는 찾아보는 재

미가 있다. 우리에게 이제 댄스 그룹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냉동인간 비주얼그룹’이라고 생각해 달라.” (강성훈)

△젝스키스의 컴백은 1세대 아이돌의 귀환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담이 되지 않나
“떨리고 불안하고 긴장된다. 하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고 긴장이다. 사실 어떤 아이돌 그룹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우리가 재결합을 생각할 때도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다. 무엇을 하든 신중해지고 대중 할 수 없겠더라.” (은지원)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음악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은 모든 동료 가수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데뷔 연차가 높다 보니, 기대의 크기가 더욱 크고 그에 비례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하지만 무대에 설 때에는 후배들과 똑같이 설레고 똑같이 떨린다.” (이재진)

△후배 가수들과 활동을 함께하게 된다. 선배로서 느끼는 책임감 또한 작지 않겠다
“정말 크다. 시대를 따라가는 음악보다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싶다. 후배들이 봤을 때에도 ‘형님들 멋지다’고 느낄 수 있는 음악, 그게 우리의 꿈이자 목표다.” (은지원)

이은호 기자 wild37@



진지한듯 위트있고
허당인듯 노련하며
유혈낭자 감춰주고
역지멜로 사라지니

女心 뚫은 터널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다. ‘터널’이 시청률 상승과 함께 안방극장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OCN 주말드라마 ‘터널’(극본 이은미, 연출 신용휘)은 1986년 터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쫓던 열혈 형사 박광호(최진혁 분)가 2017년으로 의문의 시간 이동을 하게 되고, 엘리트 형사 김선재(이유영 분), 범죄 심리학 교수 신재이(이유영 분)와 함께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연쇄 살인 범인을 쫓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다. 매회 거듭되는 반전으로 호평받고 있다.

‘터널’은 첫 회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플랫폼 기준 2.8%(이하 동일 기준)로 시작했던 ‘터널’은 23일 방송된 10회에서 5.4%까지 뛰어올랐다. 전작 ‘보이스’가 기록했던 OCN 최고 시청률인 5.7%를 넘을 기세다.

눈길을 끄는 점은 여성 시청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터널’ 관계자는 “‘터널’은 다른 OCN 작품들보다 여성 시청률이 높은 편이다. 30~40대 시청률이 10% 가까이 된다”면서 “여타 장르물에 비해 잔혹성은 다소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터널’의 강점”이라고 평했다.

이들의 말처럼 ‘터널’은 여타 장르물과는 조금 다르다. 매회 거듭되는 반전과 사건을 풀어 가는 묘미는 장르물의 특성을 따랐고, 그 기저에는 휴머니즘을 깔았다. ‘연기 구멍’ 없는 배우들의 연기는 ‘터널’이 표방하는 ‘인간적인 수사물’을 실감나게 살려냈다. 뻘하다 뻘한 ‘형사들의 사랑’을 조망하기보다는 30년을 뛰어넘은 박광호(최진혁 분)의 좌충우돌 현실 적응기로 웃음을 얻어냈다.

살인사건 또한 시대거리의 연속성을 가지며 몰입감을 더했다. 박광호가 몸담고 있던 1986년의 연쇄살인범이 30년 후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지만, 시체에서 그가 과거 해결하지 못한 연쇄살인범이 남긴 흔적이 남으며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남겼다. 두 명의 살인범, 이는 장르를 마니아에겐 또 다른 추리를 펼칠 지점이 됐다. 여기에 신재이가 박광호의 딸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시대 간의 연결성이 더욱 짙어졌다.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신용휘 감독은 “‘터널’은 주연 3인방 모두 여인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캐릭터다. 이 사람들이 서로 보완해서 나가는 휴먼 드라마다. 살인 소재는 잔인하지만 자극적 묘사보다는 휴머니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은 “가볍게 재미만, 흥미로운 장면이 많다.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널’은 편하게, 그러면서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다. 기존 장르극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휴머니즘적 수사를 ‘터널’이 앞으로 기록할 성격에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 OCN
김예슬 기자 yeye@



또 언니가 돌아왔다



이영애, 고소영의 부진을 장서희, 김희선은 만회할 수 있을까.

오랜 침묵을 깨고 안방극장에 복귀했던 이영애, 고소영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언니’들은 있다. 15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주말극 ‘언니는 살아있다’의 장서희, 6월 방송 예정인 JTBC 새 금토드라마 ‘폼위있는 그녀’의 김희선·김선아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과연 과거 ‘흥행권’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초반 화제성 반짝, 이영애·고소영 아쉬운 성적표

화제성은 차이나 불과했다. 작품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던 이영애, 고소영도 더 이상 흥행보증수표는 아니었다.

이영애는 2004년 MBC ‘대장금’ 이후 13년 만에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로 돌아왔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제작비만 200

이영애·고소영 씩씩한 성격으로 퇴장
장서희 ‘언니는...’ 인생작 갱신 입소문
김희선·김선아 ‘폼위있는 그녀’로 컴백
‘시청률 여왕’ 복귀작에 안방극장 들쭉

억 원이 소요된 대작. 신사임당의 일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력 논란, 작품의 짜임새 부족, 사전 제작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시청률 경쟁에서 밀리고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고소영의 KBS2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도 마찬가지다. 고소영이 배우 장동건과 결혼, 출산 이후 10년 만에 컴백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지만, 초반 시청자들을 흡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동시간대 방송된 MBC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과 SBS ‘갯속말’에도 밀리면서 반등을 이루내지 못했다.

◇첫 방송부터 세다... 역시 장서희
장서희에 대한 반응은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이영애, 고소영과 차이가 있다.

‘언니는 살아있다’는 MBC ‘백년의 유산’, ‘전설의 마녀’,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등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다. 첫 회부터 칼부림, 교통사고, 배신 등 각 인물들의 사건 사고가 휘몰아치면서 “역대급 드라마가 나왔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너무 막장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빠른 전개 속에 중심을 잡아주는 장서희가 있어서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장서희가 SBS ‘아내의 유혹’에 버금가는 인생 캐릭터를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

◇‘아는형님’ 시청률 여왕 김희선, 믿고 보는 김선아

김희선과 김선아는 ‘폼위있는 그녀’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김희선은 MBC ‘앵그리맘’, 김선아는 KBS2 ‘복면검사’ 이후 2년 만이다. ‘폼위있는 그녀’는 화려로운 삶을 살던 여자가 집안이 몰락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부유층 상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낯과 상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층의 이야기를 고루 담아낸다. 김희선이 미모의 존재비가 주부 우아진, 김선아가 미스터리한 요양사 박복자 역으로 활약한다.

김희선은 드라마 홍보를 위해 JTBC ‘아는형님’에 단독 게스트로 출연, 이 프로그램 방송 사상 처음으로 시청률 5% 돌파를 이뤄낸 주인공이다. 건실한 예능감과 스타성을 인정받은 김희선이 ‘폼위있는 그녀’에서는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김소연 기자 suel23@

“또 음모론이라고? 난 통계적 수치를 말했을 뿐”

인터뷰 다큐 영화 '더 플랜' 제작자 김어준

지난 대선 '미분류표' 의혹 제기했더니 선관위 '책임질거나' 역공 과학적·합리적으로 따지며 분석...나에 대한 편견 버리고 봐주길 이명박 비자금 추적 '저수지게임' 세월호 다룬 '인텐션'도 제작중

'더 플랜'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 남긴 '숫자'를 둘러싼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 다큐멘터리다. 정확한 K값(미분류표 분류된 표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를 더 많이 가져갔는가를 설명하는 지표) 1.5의 의문을 제기한다. 김어준은 영화 '더 플랜'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씩 검증했다.

Q. 선관위에서 '더 플랜'의 주장을 반박하고 검증 결과 조작의 흔적이 없다면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는데.

A. 실망스럽다. 일종의 협박이라고 여겨진다. 선관위에 바라는 것은 개표과정이 우리가 믿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번 대선에서는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 조처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거나 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개표소 테이블 하나만 바꾸면 된다.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통계적 수치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꾸로 협박을 당한 셈이다.

Q. 투표과정에서 노인들의 오기로 미분류 표가 많았다는 '노인가설'이 제기됐다.

A. 우리가 단순히 의혹만으로 영화를 만들었을까. 선관위가 주장하는 노인 가설부터 투표용지 디자인 가설 등은 이미 통계적으로 분석을 마친 상황이다. 20가지가 넘는 온갖 가설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오류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모든 가설이 다 기각됐다. 만약 우리의 분석을 반박하려면 통계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야 한다. 데이터 없는 주장이야말로 음모론이다.

Q. '더 플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저수지 게임', 세월호 이야기를 다

룬 '인텐션'이 나온다는데.

A. '인텐션' 또한 '더 플랜'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명박의 경우 제대로 된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명박 하면 돈이 없다. 그래서 '저수지 게임'의 주인공은 돈이 됐다. '더 플랜'이 마지막으로 기획된 경우다. 박근혜의 '세월호'와 이명박의 '돈', 그 사이를 잇는 이벤트가 바로 대선이다. 대선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었으니, 대선을 한번 해보자가 된 거다. 'K-1.5'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Q. 영화 '더 플랜'의 제작 이유는.

A.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이라거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 한 몸 희생하겠다거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그냥 "거짓말이잖아, XXI" "X팔린 짓은 하지 말자" 수준에 가깝다. 다만 그것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과학적으로,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따져 꾸준히 찾아볼 뿐이다.

Q. 김어준에게 달라붙는 음모론 프레임이 많다.

A. 중간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놈, 또 음모론이네"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제기한 문제 중에, 허황된 것으로 밝혀진 게 없다.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 '더 플랜'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5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찾아낸 숫자다. 전문가들이 통계적으로 밝힌 숫자이니, 그 수준의 반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김어준이 제작자라고, 김어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쁜 이미지에 붙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영화 '더 플랜' 제작자 김어준.

사진제공 프로젝트 부

리뷰/영화 '특별시민'

현실 정치의 실사판? 막장 설정 다소 과해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 이익 앞에서 어제의 적과 손을 잡는다. 약점이 될 것 같으면 친구도 적으로 돌려버린다. 갖가지 네거티브 공세와 할란과 비방이 난무하는 세계, 정치판이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서울시장 변종구(췌민식)의 3선 도전기를 그린 '특별시민'은 그러한 정치세계의 속성을 냉정하게 까발리는 영화다.

이 영화의 핵심은 선거대책본부장 심혁수(곽도원)의 말로 대변할 수 있다. "선거는 똥 속에서 진주를 꺼내는 거야. 손에 똥 안 묻히고 진주 꺼낼 수 있겠어?" 실제로 손에 똥 묻히는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난다. 실검 장악을 위해 은밀히 가슴을 노출하고, 상대방에 맞을 높여 동영상을 짜깁기도 서슴치 않는다.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사생활을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다. 언론과의 유착, 검은 돈거래... 이 모든 걸 감시해야 할 기자 역시 특정 앞에서 꼬리를 살랑인다.

변종구-양진주(라미란), 양 진영이 펼치는 홍보 전쟁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전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적어도 '특별시민'을 보면 상상이 된다.

"안철수의 파격적인 '백보 포스터'가 이슈의 중심에 섰을 때 문재인 후보 측 홍보팀은 머리를 싸맬것구나", "다음 날 문재인 측이 제기발랄한 정책홍보 사이

실검 장악·지지율 상승 위해 언론 유착·검은 돈거래 펼쳐 연출-대사-캐릭터 설정 아쉬워

트 '문재인 1번가'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을 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겠구나." 엄청난 이슈가 뜨고 지는 대선 판도에서 화제가 된다는 것,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해지는 현 선거판의 흐름을 파헤친 지점이 꽤나 흥미롭다.

하지만 잘 짜인 정치드라마로 보기엔 찰기가 다소 부족하다. 욕망, 승부욕, 이념, 인간관계의 그물망...이 좋은 선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한 정치인을 높으로 인도하면서 과하다 싶게 설정한다. 관객에 따라서는 막장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설정인데, 한국에서 세련된 정치 영화를 만나기란 역시나 힘든 것일까.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특별시민'의 톤을 다소 애매한 위치로 데려다 놓는다.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기엔 좀 무겁고, 잘 짜인 정치드라마로 보기엔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동시에 가벼운 면이 있다.

캐릭터 개개인의 사연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연출과 많이 들어보셨던 관성적인 대사가 중요한 신들에서 나왔던 것 역시 아쉽다. 물론 영화에는 이러한 단점을 눌러주는 노련한 배우들이 있다. 의도치 않게 빨라진 대선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 볼 대목이다. 정치처럼 영화에도 늘 변수는 존재하니까.

정시우 기자 siwoorain@

이번 선거판엔 연예인이 안보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없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호남 대결이 없다는 점에서 '3무(無) 대선'으로 불린다. 없는 것은 하나 더 있다. 연예인이다. TV에 나와 찬조 연설을 하고 유세 현장을 돌며 분위기를 달구던 연예인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8대 대선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그때 배우 김어준과 가수 인순이가 카메라 앞에 서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찬조 연설을 했다. 배우 명계남, 문성근은 유세 차량에도 올랐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아예 '누리 스타'라는 이름의 유세단을 꾸렸다. 가수 설운도, 김홍국, 현미 등을 비롯한 120여 명의 연예인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연예인 증발'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두려움이다.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 등 진보 성향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어준은 18대 대선 이후 SNS를 통해 문재인 캠프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대중의 저항도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막는 요소다. 가수 전인권은 최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가 '적폐 가수'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명한 뒤, 마찬가지로 '악플' 세례를 받았다. 보수 진영은 더욱 처참하다. 탄핵 정권을 의식하기도 한 것일까. 지난 대선

18대 땀 찬조연설·유세 등 활발 19대 대선 특정 후보 지지 드물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려에 소극적 '정치적 성향' 대중에 부정적 이미지 전인권·신대철 지지발언 이후 악플

에서 보수성향을 드러냈던 연예인들은 일제히 침묵 중이다.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에게 극성맞은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역사다. 덕분에 "투표하자"는 너무나 당연한 독려나 "나라가 아순실하다"는 조심스러운 풍자는 '소신 발언'으로 추앙받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진짜' 소신



전인권

신대철

발언은 '적폐' 혹은 '빨갱이'로 낙인찍히는 현실이다.

정치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발언도 하고 자신의 소신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연예인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나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이 그들을 특정 세력으로 규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은희 기자 wild37@

각본 없는 '대선', 예능보다 웃기고 드라마보다 재밌다? 때아닌 복병에 방송편성 '눈치작전'

드라마도, 예능도 대선을 막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13일 총선을 기점으로 최순실 사태까지 승승장구하던 JTBC '철전'의 행보를 막은 건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였다. 13일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였던 SBS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철전'과 동시간대 방송됐고, 평소 7%대를 유지하던 '철전' 시청률은 4%대까지 하락했다.

TV토론 시청률 대박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19일 KBS1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 전국 일일 시청률은 26.4%(닐슨코리아, 이하 동일 기준)였다. 대선 후보 TV토론의 영향으로 동시간대 방송된 월화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은 모두 시청률 하락을 맞았다.

JTBC 창사 이래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프로

후보토론 시청률, 간판 프로보다 앞서 '역적' 종방, 개표방송 겹쳐 한주 연기

그램도 예능, 드라마가 아닌 대선 TV토론이었다. 25일 방송된 jtbc의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시청률은 15.9%였다. 이는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인 '뉴스룸'의 11%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 만큼 토론 직후 각 후보 지지층의 갑론을박, 토론 안에서 나온 발언들의 팩트 체크 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선 토론이 예능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극적이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진짜 예능, 드라마가 외면 받는 형국이다.



KBS2 새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왼쪽)와 MBC 월화드라마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 사진제공 각 방송사



은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는 만큼 방송가에서는 5월 9일 대선 개표 방송을 놓고도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KBS는 26일 "5월 8-9일 2부작 드라마 '개인주의자 지영씨'를 방송한다"고 확정했다. 개표 방송과 KBS2 새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 첫 방송이 겹치는 것을 피한 셈이다. '쌈, 마이웨이'는 박서준, 김지원이 출연하는 드라마로 탄탄한 대본이 입소문이 날 만큼 KBS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개인주의자 지영씨' 편성에 앞서 정성호 KBS 드라마 센터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개표 방송을 놓고 각 방송사마다 눈치작전이 치열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략적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MBC 월화드라마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은 본래 대선일인 5월 9일 중영이었다. 하지만 5월 2일 대통령 후보 3차 토론 생방송 중계로 1회 연기되고, 5월 9일엔 개표 방송이 예정된 만큼 한 주 후인 16일 중영한다.

김소연 기자 suet23@



영화 '특별시민' 스틸컷. 사진제공 쇼박스



남부러운 혜택! 12자의 IBK나라사랑카드



통합할인한도 조건 없는 할인혜택

- 군마트(PX), GS25, CU 할인
- 전국 6대 놀이공원 현장할인

- KTX, 고속버스, 대중교통 할인
- 현실적인 전월이용실적 충족 시 제공

전월실적 관계없는 편리한 서비스

- Syrup 통합 멤버십
- 그린카드 적립·할인 서비스
- 모든은행 ATM 출금수수료 면제
- 후불교통카드 기능
- 현역병 상해보험 무료가입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227호(2017.04.06), 발급대상: 입대예정자, 현역병사 등 / 발급구분: 체크 / 연회비: 면제

* 이 연회비는 2017.04.06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맹점업점 또는 고객센터(☎66-26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5년 이상 연속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 상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정위기·천재지변·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 카드사기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사유·변경내용 등을 서무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2017.02.29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메일 개별고지 해드립니다. → 개별고지방법 카드대금영수서 우편, 이메일,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하나 / *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익이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2, IBK기업은행 ☎800-800-0111, / * IBK기업은행은 금융·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물리경영 위반 사안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73-740, e-mail: ibkfrs@ibk.co.kr)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최저 16.5% ~ 최고 연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션힐스 블랙버스터 180 완주해 아이언 맨 인증서를 받은 골퍼투어 전문 여행사 대표들.

사진제공 스튜디오 맑음 김충무 포토

골퍼들의 버킷리스트 '미션힐스 180홀 완주하기'

기량·체력, '하늘'이 도와야 '鐵人' 탄생

골퍼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목록 중 하나가 있다. 국내 골프장을 일주하는 것, 혹은 친구들과 디 오픈이 열린 골프장까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 플레이 하거나 마스터스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라운드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미션힐스골프&리조트에서 180홀을 돌아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10개 코스, 180홀을 보유한 하이난 미션힐스골프코스는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리는 명문 코스다. 올해 김해림(28·롯데)이 우승한 SGF67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미션힐스의 블랙스톤 코스.

LPGA 열리는 中 하이난 명품 골프장 사흘간 10개 코스 180홀.. 날씨가 변수 첫 코스 '블랙스톤' 열번째 '새도 둔스' 등 코스와 홀을 감싸는 벙커·워터헤저드 우아한 레이아웃에 한눈팔다 크고 다채 캐디, 정직한 기록... '아이언 맨' 인증서

3명의 여성대표도 '생생하게' 완주했다. 이들은 '아이언 맨' 인증서와 함께 프로들이 사용하는 스리슨 캐디백을 선물로 받았다.

이번 투어는 조금 독특했다. 골퍼투어 전문가답게 하이난 산야(山野)로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음날 아침에 중국 고속열차를 타고 하이난의 색다른 풍광을 감상하면서 하이커우(海口)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고 강행군이 시작됐다. 일단 게스트로 참가한 다른 일행과 3명이 한조로 팀을 짜서 돌았다. 4명이 한조를 이루면 차질 36홀을 도는데 무리가 따르지만 때문이다. 첫날 36홀을 무사히 마치고 리조트 곳곳을 돌아보았다.

미션힐스는 코스뿐 아니라 63개의 세계적인 온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들어온 거대한 워터파크를 한창 건설 중이다. 특히 패밀리를 위한 각종 놀이기구,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하다. 영화촬영의 명소 무비랜드와 먹고, 놀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샌드레일이 있어지면 코 당을 곳에 있다.

여린이 놀 곳도 전지다. 특히 분수대에서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 뿜어 나오는 '물 쇼'는 장관을 이루며 눈을 즐겁게 한다.

10개 코스 중 역시 최고 코스는 1번 블랙스톤. 토너먼트가 열리는 걸코 쉽지 않은 코스다. 불수록 우아한 레이아웃과 최상의 코스 관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3개 홀을 감싸고 도는 워터헤저드가 잔잔한 골퍼들의 마음에 돌을 던지며 공략을 방해한다.

역시 토너먼트가 열리는 라바 필즈 코스는 156개에 달하는 많은 벙커들이 입을 크게 벌리며 불을 삼켜버릴 듯 벙커처럼 지키고 있다.

비록 파3지만 4번 스텝스톤 코스는 까다롭다. 화산암과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정구 홀 못지않게 골퍼들을 괴롭힌다. 거리가 짧아 보이지만 위험 요소가 많아 정규코스보다 불을 더 잘 잃어버리기 일수다.

인상적이면서 잊지 못할 코스가 있다. 바로 7번 스톤 퀘리(STONE QUARRY) 코스다. 마치 석탄을 캐다만 것처럼 광산 주변의 느낌과 레일 등이 홀 곳곳에 자리 잡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이 머무는 색다른 코스다.

스코틀랜드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곳도 있다. 10번 '새도 둔스(SHADOW DUNES)' 코스다. 그린과 페어웨이는 깔끔하고 잘 정돈돼 있지만 디자인 자체가 마치 머리를 풀어헤친 듯 보여 '미친날' 코스라 불리는 곳이다. 한눈 팔다가는 샷이 엉망이 된다. 모래와 둔덕, 잡목, 선인장, 수염 풀들이 마치 파도처럼 디자인된 곳이다. 기량이 안 되는 골퍼에게 정말 열 받게 하는 코스라고 보면 된다.

하이난 미션힐스는 직항으로는 공항에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스카 및 온천뿐 아니라 중식, 일식, 양식, 한식 등의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식사가 일품이다.

국내에서는 스카이72골프클럽 양천국(69) 헤드프로가 지난해 최고령으로 돌았고, 컨설턴트 전문가이자 마라토너인 이기동 박사(골디락스 대표이사)가 세계 처음으로 2년 동안 3번 완주를 기록했다.

'미션힐스 블랙버스터 180'은 미션힐스 국내 총판인 마케팅 하이랜드(대표 최주영)가 야심차게 마련한 패키지 국내 골퍼투어 전문여행사에서 판매한다. 산야를 거처서 가는 일정은 4박6일로 11월까지 한정적으로 특기인 169만 원이다.

던롭스포츠코리아(대표이사 홍순성)는 180홀을 완주한 골퍼투어 전문 여행사 오케이골프 유통망 대표 등 10명에게 스리슨 캐디백과 스리슨 모자를 제공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왼팔이 제대로 움직여야 스윙 스피드와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왼팔에 힘이 들어가 팔꿈치가 뒤를 보고 있는 잘못된 동작.

스윙 스피드·비거리 늘리는 왼팔 사용법



스윙의 스피드를 늘리고 정확성을 늘리기 위해선 왼팔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왼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체코크기 위해서는 클럽을 거꾸로 잡고 왼손 왼손만 잡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왼손만 가지고 폴로스루까지 동작을 해 봅니다.

이때 왼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골퍼는 잘못된 동작의 자세와 같이 클럽은 가볍지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팔꿈치가 뒤를 보고 있는 자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동작이 나오면 클럽헤드에 무게를 실어주지 못하게 되어 스윙 스피드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피니시까지 하게 되면, 왼팔이 하늘로 많이 올라가고 높아지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궤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공으로 스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선 왼팔이 로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팔꿈치가 지면을 보도록 팔꿈치를 한 번 회전시켜주

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 팔꿈치가 지면을 본 후 팔을 펴 주면 로테이션이 이뤄지면서 폴로스루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궤도로 움직일 수 있고, 팔이 허공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왼손으로 스윙을 할 때 그날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을 느끼면서 그립 끝에 무게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한손으로 스윙을 해도 바람소리가 나며 그립 끝이 휘둘러 때 무겁다고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바람소리가 약하거나 소리가 나지 않고 시원하게 휘둘러는 느낌이 없으면 실제 스윙을 할 때에도 스윙 스피드가 나지 않게 됩니다. 클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충분한 연습을 한 뒤 그립 끝에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오른손 바닥을 펴고 힘을 주지 않은 상태로 같이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다음 스윙을 왼손의 느낌만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반복 동작 후에 클럽을 정상적으로 잡고 볼을 치도록 합니다. 이처럼 왼손으로 먼저 올바른 움직임을 체크한 후에, 동작을 익히고 스윙에 적용시켜 보도록 합니다. 네이버 1백 레슨 교습가 김수현의 편한골프아카데미 원장

퍼팅라인이 아른거리면 '날파리증' 의심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 푸른 잔디 위에서 즐기는 라운드는 골프 마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꿀 같은 시간이다. 그런데 햇빛 밝은 날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 보면 눈앞에 실이나 날파리 같은 것이 동그아니하게 보이거나 함께 보일 때가 있다.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퍼트할 때나 거리를 가늠할 때 랜스레 거슬리고 집중을 방해한다. 날파리증 또는 비문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다.

갑자기 눈앞에 어른어른 이상한 것이 보이면 눈에 뭔가 질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수도 있다. 보통 비문증은 노화에 의한 유리체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는 투명한 겔 같은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액체로 변한다. 여기서 조금씩 떨어져 나온 유리체 부유물이 밝은 빛 아래에서 작은 벌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검은 점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유리체가 떨어진 부분이 빛의 일부분을 가려 감게 보이는 경우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비문증은 시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드물게 망막혈관의 파열에 의한 출혈이 있거나,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망막열공, 망막박리, 포도막염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비문증과 통증, 출혈, 시력저하, 두통 등이 동반된다면 안과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시력이나 눈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시야에 자주만 보이는 비문증이 거슬러 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그림을 살펴보고 있는 이정민 선수.

있다. 수술은 안구에 구멍을 뚫고 부유하는 유리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문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 않는다. 수술 후에 백내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에도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막열공이나 유리체 출혈로 인한 비문증이나, 비문증의 크기가 너무 커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이, 눈에 동반된 안질환이나 증상의 심한 정도 등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비문증과 함께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속눈썹이 길어 눈을 자주 찌르는 경우, 눈의 피로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이나 안약을 통해 비문증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비문증을 완벽히 없애는 안약이나 약물은 없다.

비문증은 자연스럽게 적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눈앞에 뭔가 보인다는 것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기 맑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라운딩하며 직장이나 업무, 가정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어보면 어떨까.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안과 전문의

용꿈 꿔다면 무안으로... '카이도시리즈' 갤러리에 벤츠 경품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전남 무안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운이 따르면 아마도 벤츠 승용차가 굴러들어올지도 모른다. 주최측이 갤러리에 벤츠A200을 쏜다.

무대는 카이도시리즈인 2017 유진그룹·올포유 전남오픈 위드 무안CC(총상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원). 대회는 27일부터 4일간 무안컨트리클럽 동코스(파 72·7050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8개 대회, 총상금 41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골프대회 시리즈인 KPGA 코리아투어 카이도시리즈의 첫 대회다. 특히 협회가 추진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전국순회투어의 일환이다. 여기에 유진그룹과 한성에프아이 스포츠캐주얼 브랜드 올포

유, 그리고 전남도가 함께한다.

관심사는 지난주 개막전 제13회 동부회재 프로미오픈에서 우승한 맹동섭(30·서산수골프앤리조트)이 연속 우승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예비역' 맹동섭은 2009년 SBS시리즈 조니워커 블루라벨 오픈에서 데뷔 첫 승을 거둔 뒤 7년 6개월 12일 만에 통산 2승째를 올렸다.

맹동섭은 "오랜만에 거둔 우승이라 들떠 있지만 자만하지 않겠다"며 "개막전의 우승은 잊고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는 마음 기점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무안컨트리클럽은 KPGA 코리아투어를 처음 개최하는 골프장이지만 천혜의 경관 속에 예술적 조형미를 자랑하며 바닷가의 시원한 미풍



과 자연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서 대회 기간 내내 선수들이 펼치는 샷 대결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JTBC골프는 27일 오전 11시부터 4일간 생중계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삼성전자株 285만원까지 오른다”

에프앤가이드 증권사 추정치 분석
2분기부터 IM·하만 실적 반영 등
주 사업부 호실적 내년까지 이어져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低평가 판단도
증권사, 올해 예상주가 상향 조정



삼성전자가 2017년 1분기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주가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가가 본 올해 영업이익과 적정주가 최대 전망치는 50조 원과 285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3개월 내 각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올해 매출액 22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22%, 61.44% 증가한 수치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2017년 최종 적정주가는 256만1818원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219만20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16.87% 높은 수치다.

최고값으로 시장 예상치를 분석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1조 원, 50조 원으로 올라서며, 주가 역시 285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각사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모든 사업부의 실적 호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5개년 고점 평균을 넘어설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2019년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Foldable Display)와 하만(Harman)의 고사양 음향기기를 필두로 글로벌 세트업체(스마트폰·TV)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예상치는 57조 원으로 11.14%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분기 배당 시작과 동시에 실적 컨퍼런스콜 이후 자사주 매입도 재개되고, 2분기부터 IM사업부 실적 개선과 더불어 하만 실적이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2017년 추정실적 기준 PER9.1배에 거래돼 글로벌 동종업체보다 저평가 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일부를 다음 달 2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9조2000억 원(주가 214만 원 기준) 감소하기 때문에, KOSPI200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주식수 감소로 KOSPI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유통주식반영 시가총액 비중은 26.79%로 산출된다. 이는 상장주식수 감소 전보다 1.3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최두선 기자 sun@

네이버 ‘好실적’... 거품이었나?

기술환경 변화 따른 이익률 둔화 우려
외국인·기관 이달 들어 1520억 순매도
하락폭 10% 육박... 주가 70만 원대로



네이버의 호실적에도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인 매도세에 따른 결과다. 대규모 투자 계획과 그에 따른 이익증가율 둔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는 장초반 약세를 보이며 한때는 78만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전 거래일 대비 1.98% 감소한 79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네이버는 이날 국내외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을 뒤엎고 호실적을 발표했다. 올 1분기 잠정 영업이익 2908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5% 오른 1조822억 원, 당기순이익은 27.8% 늘어난 2109억 원이다.

하지만 개선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는 추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집중된 결과로, 이들은 이날 하루 동안 143억 원, 198억 원어치의 네이버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달 들어 누적 순매도 규모도 각각 534억 원, 109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와 그에

따른 비용 증가, 이익 증가율 둔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와 라인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음성인식 등 신기술·콘텐츠 확보를 위해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기업을 인수하고 박사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면서 큰 폭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제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투자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이달 들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1조6000억 원에서 1조5200억 원으로 5% 낮췄고 목표 주가도 99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80만 원 후반대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서만 9.4%가량 빠지며 한 달 만에 7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1903호(2016.04.07~2017.04.05)

1 K-CSBI Korea Customer Surprise Brand Index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4년 연속 1위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스마트몬몬TS 부문 1위, 2016. 04. 20

SK증권 ‘주파수’

스마트한 주식파수꾼

주파수 株把守

‘주파수’는 주식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뜻으로 SK증권의 대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주파수’로 모이고, ‘주파수’로 통한다!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몬몬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행복파트너 SK증권 | 고객센터 | 1599-8245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 (단위: 억 원)

종목명	외국인 순매수액	종목명	외국인 순매수액
1 삼성전자	3089	6 삼성전자우	468
2 SK하이닉스	1451	7 LG전자	390
3 하나금융지주	598	8 현대모비스	348
4 NAVER	536	9 SK이노베이션	306
5 신한지주	474	10 롯데칠성	302

코스피 투자주체별 순매수 규모 (단위: 억 원, 기간: 4월 24~27일)

주체	순매수액
외국인	1조 2981억
개인	8305억
기관	4395억

外人 1.3조 순매수... IT·금융·음식료 집중

이주의 수급동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 35% 차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대거 사들이며 코스피 지수를 약 6년 만에 2200선 위로 끌어올렸다. 국내 기업의 1분기 호실적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환율 하락으로 원화자산 가치가 오르는 등 증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1조2981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달 들어 추축했던 국내 증시 매수세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전주 2165.04에서 2209.46으로 해당 기간 44.42포인트(2.05%) 상승했다. 반면 기관은 4395억 원, 개인은 8305억 원을 각각 팔며 차익실현에 주력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일정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에 화답하고 있다”며 “세계 경기 전망이 상향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고, 프랑스 대선 등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이 안도감을 줬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3089억 원)와 SK하이닉스(1451억 원)였다. 두 종목의 순매수액만 4540억 원으로 전체 순매수 금액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599억 원, △NAVER 536억 원, △신한지주 474억 원, △삼성전자우 468억 원, △LG전자 390억 원, △현대모비스 348억 원, △SK이노베이션 306억 원 등이었다.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은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일치했다. 박준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순매수 강도를 보면 실적개선이 두드러진 IT와 함께 내수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금융, 음식료 등 내수주의 경우 국내 대선을 앞두고 자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기업 PR 은퇴시점 맞춰 주식·채권 비중 알아서 조정

‘한국투자TDF알아서펀드 시리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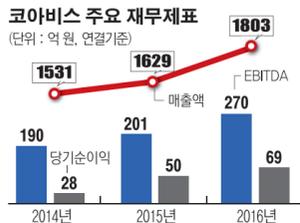
한국투자자산운용은 은퇴자산의 성과와 관리를 개인별 은퇴시점에 맞춰 투자해 주는 ‘한국투자 TDF알아서펀드 시리즈’를 판매 중이다. 이 펀드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은퇴시점에 맞춰 미리 미리 정해진 자동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의 비중을 알아서 조정하며 운용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다.

한 번의 투자로 20여 개의 펀드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고, 하나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펀드 내 투자 비중이 알아서 조절된다. 또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을 늘려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주식의 편입과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운용은 ‘한국투자TDF알아서 펀드시리즈’에 한국 투자 비중을 10~30%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등, 한국 투자자들의 자국 투자 선호 현상을 반영하고 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은퇴 자산을 위한 상품인 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한국투자TDF알아서 펀드시리즈’는 채권 혼합형 1종과 주식혼합형 6종으로, 주식혼합형은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HMC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코아비스 매물로... LG전자·만도, 입질?



현대기아차·폭스바겐 등에 연료펌프 납품 기술력 인정 지난해 당기순익 38% 증가

해외기업도 인수후보 거론 전장부품 아닌 것이 단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코아비스에 국내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를 비롯, 해당 사업부문을 강화하는 LG전자를 인수 후보로 꼽고 있다. 코아비스의 매각은 예비입찰 일정 잡히지 않은 단계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업계의 추정인 상황이다.

하지만 코아비스가 현대기아차, 한국지엠뿐 아니라 GM, 폭스바겐 등에 주력 제품인 연료펌프를 공급하는 업체란 점에서 충분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상 글로벌 자

동차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0여 년이 걸린다. 이를 고려하면 코아비스의 기술 경쟁력은 원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기업에는 매력적인 투자 요소로 꼽힌다.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코아비스의 주요 인수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앤컴퍼니는 코아비스의 매각주관사로 BDA파트너스를 선정했다. BDA파트너스는 국가 간 인수·합병(M&A) 자문에 특화된 곳이다. 이에 따라 BDA파트너스의 예비투자자 모집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힘이 실릴 것이라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코아비스는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코아비스의 2016년 매출액은 1803억 원, 상각전영업이익

(EBITDA) 270억 원, 당기순이익은 6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0.7%, 34.3%, 38.0% 증가한 수치다. 한앤컴퍼니가 코아비스를 인수한 시기인 2012년과 비교하면 EBITDA는 82.4%나 뛰었다. 특히 코아비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 회사의 중국 수익은 2016년 312억 원으로 전년도의 226억 원에 비해 38.1% 증가했다.

다만 코아비스의 주력 제품인 연료펌프가 전장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각 흥행을 자신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계는 전장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에는 연료펌프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와이솔 연도별 경영지표 (단위: %)

※자료: 전자공사시스템

연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매출원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2012년	20.3	2.3	66.2	17.2	102.9	107.2
2013년	32.5	57.6	74.6	10.3	89.5	127.1
2014년	35.3	36.6	86.2	5	122.9	117.5
2015년	24.6	48.1	83.3	9.2	90	131.3
2016년	4.2	1.9	83.9	7.9	70.1	184.5

성장 주춤 와이솔, 시설투자 나선다

원가 상승에 매출·영업익 둔화 재무구조 튼튼 투자 여력 탄탄

코스닥업체 와이솔의 성장성 지표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탄탄한 재무구조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규 생산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향후 고속 성장의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이솔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와이솔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2.3%에서 이듬해 57.6%로 급격히 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6.6%와 48.1%로 3년간 고속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가 늘어난 데 그쳤다. 총자산 증가율도 2012년 20.3%, 2013년 32.5%, 2014년 35.3%, 2015

년 24.6%, 2016년 4.2% 등이다.

이와 함께 원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와이솔의 연도별 매출원가율을 보면 2012년 66.2%, 2013년 74.6%, 2014년 86.2%, 2015년 83.3%, 2016년 83.9% 등이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17.2%, 2013년 10.3%, 2015년 9.2%, 2016년 7.9% 등이다.

특히 와이솔의 특징은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와이솔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2012년 102.9%, 2013년 89.5%, 2014년 122.9%, 2015년 90.0%, 2016년 70.1% 등으로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단기자금 운용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유동비율도 지난 2015년까지 100-130%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4.5%까지 증가했다. 단기에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대한뉴팜, 미용시장 진입... 한국비엔씨와 필러 獨占계약

히알루론산 필러, 전체 시장의 90% 넘어... "미용주사제와 시너지 효과 기대"

대한뉴팜이 국내 필러 제조 전문기업의 독점 판매권을 따내는 등 국내 안면 미용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한뉴팜은 한국비엔씨(BNC Korea Co., Ltd.)와 필러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한뉴팜은 현재 시장에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플랑셀'은 물론 '뉴젤', '청아안' 등 한국비엔씨에서 제조하는 모든 필러 브랜드의 국내 마케팅과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

2007년 설립된 한국비엔씨는 필러와 유착방지제로 유명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지난 2015년 코넥스 시

장에 상장했다.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 필러(Hyaluronic Acid, HA), 창상피복재(Wound Dressing) 등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최초로 필러를 개발했으며 히알루론산 유도체의 입자 제조장치 및 방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팜이 제공한 국내 필러 시장 규모의 업계 추정치는 2009년 189억 원에서 최근 1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해 연평균 3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 대한뉴팜이 한국비엔씨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히알루론산 필러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기술 건수는 지난 2010년 약 6만 건에서 2014년 17만9000건으로 추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비엔씨의 제조 기술력과 미용주사제 뉴디엔, 신텔라주 등 기존에 대한뉴팜이 보유한 피부 미용 제품 판매 유통망이 결합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성장성이 돋보이는 필러를 통해 안면 미용시장에 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뉴팜은 미용주사제 신텔라주, 루치온, 뉴디엔 등의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필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

대한뉴팜 주가 추이 (단위: 원)



한 후 지난해 10월 독점계약을 체결한 세포치리제 큐어스킨과의 공동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 확대 효과는 물론 향후 기능이 개선된 히알루론산(HA)을 비롯한 폴리락타이드(PLA),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등의 제품 도입을 통한 제품 다각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우람 기자 hura@

텔콘 관계사 '비보존' 개발 신약, 日 특허 따냈다

텔콘 관계사 비보존이 개발 중인 신약이 일본에서 물질특허 등록을 받았다. 이로써 비보존은 한국, 중국, 미국에서 등록받은 데 이어 유럽과 인도에서의 특허 등록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비보존은 일본에서 현재 개발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 물질(VVZ-149) 및 그 용도에 대한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 물질은 이미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각각 2015년, 2016년 등록이 결정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VVZ-149의 일본 특허 등록으로 이제 유럽과 인도에서의

텔콘 주가 추이 (단위: 원)



특허 등록 결정만 남았다"며 "현재 유럽 특허는 조만간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 특허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심사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오는 2018년 이후에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보존은 이번 일본 특허 등록으로 향후 일본 제약사로 기술이전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 의약품 관련 세계 3위 시장으로 미국, 유럽 및 일본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보존은 이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최근 빠르게 성장해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점유율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럽 특허 결정이 완료되면 전 세계 80%의 시장에서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혁신형(First-in-Class) 합성 신물질인 VVZ-149는 수술 후 통증이나 말기암 등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로 "세계 3위 시장 진출 청신호"

증과 같은 심한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다.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에 준하는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마약성으로 부작용이 적어 임상이 완료되면 최소 매출 수조 원대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진통제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비보존 관계자는 "현재 VVZ-149는 한국의 임상 2b상이 마무리돼 데이터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럽, 일본 및 중국의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지사에서 이두현 대표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휴젤, 국내외 매출 '쌍끌이'... 9분기 연속 최대실적

1분기 영업익 258억 194%↑... '보툴렉스' 30개국서 추가 인허가 진행

휴젤이 2017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젤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442억5100만 원, 영업이익 258억4700만 원, 당기순이익 209억4400만 원을 달성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3%, 194% 증가했다.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달성했던 직전 분기보다도 각각 17.1%, 28.1% 증가하며 9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58.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

휴젤 주가 추이 (단위: 원)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가파른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유럽을 포함한 해외 10여 개 국가에서 추가적인 필러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휴젤 측은 "개발완료 단계인 무통

독신제와 임상단계에 진입한 RN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혈터치리제 BMT101 등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젤은 고성장 속에서도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는 등 내상을 겪었다. 최근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베인캐피탈(Bain Capital Private Equity)에 매각 추진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회사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베인캐피탈은 전라기치 위주의 운용자산 750억 달러 이상인 초대형 사모펀드로서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최근 베인캐피탈은 휴젤의 유럽 판매사인 독일의 대형 제약사 STADA를 인수 발표하여 휴젤의 글로벌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sun@

셋톱박스 덕에... 토필드, 1분기 영업익 흑자전환

천연물 바이오, 셋톱박스 전문기업 토필드가 1분기 연결 및 별도기준 영업익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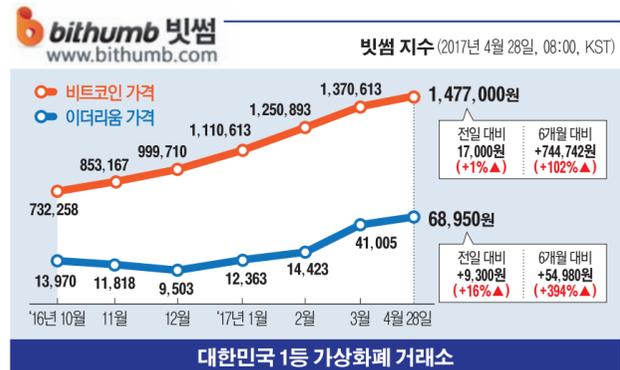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필드는 올해 1분기 매출액 55억 원, 영업이익 2억9000만 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기존 셋톱박스 사업부의 꾸준한 실적과 경영 효율화, 원가 절감으로 인한 손익구조 개선 등이 흑자 전환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1분기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흑자경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실적 성장과 함께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필드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대학교 안용준 교수팀과 함께 천연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해 집먼지 진드기 중화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두선 기자 sun@



#우리모두의에어컨 _ 2



엄마와 딸의 무풍 이야기

아낀다고 에어컨도 안켜고
 맨날 괜찮다고만 하고
 전 그런 엄마가 하나도 안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풍으로 바꿔드렸죠
 엄마, 이제 전기요금도
 찬바람도 걱정마세요



모델명 : AR06M5170HNQ



모델명 : AF25M9970BFR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1등급

삼성 무풍에어컨
 우리 모두의 에어컨

*무풍냉방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후, 자연스러운 쾌적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냉방 운전을 하고,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무풍 기능을 선택하세요. *무풍청정, 무풍제습, 무풍냉방은 무풍모드, 스마트패널 운전 시에만 작동합니다.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차가운 공기 흐름)에 의한 원하지 않는 등의 냉각이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하며 국제공인기관 인터텍(Intertek) 평가 결과 쾌적 기준 만족 *당시 모델(AF25M9970WFN) 일반냉방모드 대비 90% 절감 *전기요금은 각 가정의 총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SAMSUNG